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집 주 간 김종명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 “가자! 2022년 ‘용마의 밤’...보자! 경남중고인의 단합을” -12월 8일(목) 서면 부산롯데호텔 개최

##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성대한 개막

# 3년 만에 열린 야구대제전...“축제는 지속 된다”

### 장년부 14청년부 12개팀 출전 개막식 행사 200여명 참석 성황

3년 만에 다시 열린 경남중고인(人)의 야구대제전,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가 지난 10월 1일(토) 낮 12시 경남고 운동장에서 개막되었다. 장년부 14개팀, 청년부 12개팀이 출전했다.

이날 하늘은 청명했으나 햇살은 뜨거웠다. 섭씨 30°C를 넘는 이상고온 날씨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주말 출전 선수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대회를 두 해 건너뛴 아쉬움은 있고 모두 환한 얼굴로 마주하며 대화하고 웃고 즐겼다. 실로 오랜만의 야외 축제였다.

이번 대회는 경야회가 주관했다. 덕형리그위원회는 노브랜드배 참가 관계로 대회 주관에 힘을 보탤 수 없었다. 경야회는 총동창회 사무국의 대회 진행 경험에 힘입어 '3년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이날 개막식은 경남고 야구부의 전국 체전 출전 대비 훈련 관계로 불가피하게 낮 12시에 열렸다. 참가 선수단이 각 기수별로 운동장에 도열했다. 대회 집행위원장인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이 개막선언을 했다. 이날 국민의례에서는 모처럼 애국가가 불려졌다. 마스크를 벗고 앤데믹이 가까이 온 것을 축하하는 듯했다.

단상에 자리한 내빈 소개가 있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비롯, 옥동훈(25회) 동창회관장, 박종기(28회) 자문위원, 현용열(29회) 사무총장,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 조 경야회 회장,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상욱(53회) 경남중 야구부 감독 등이 인사를 했다.

이어 지난 51회 대회 우승팀으로부터 우승기 반환이 있었다. 장년부에선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출전 선수 대표가 대회장인 김대욱 총동창회장에게 선서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33회 최웅남 동기회장이, 청년부에선 47회 김동휘 동문이 맡았다.

대회장인 김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3년 만에 기별야구대회를 치르게 되어 다행스럽고 축하한다. 올해 48년만의 황금사자기 우승과 노브랜드배 예선 통과 등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전통 야구명문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면서 “기별야구대회는 야구 애호 동문 모두에게 큰 잔치 한마당이다. 서로 어울려 열심히 뛰고 선후배간 화합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자”고 말했다.

급한 사정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팸플릿을 통

한 축사에서 “올해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해이다. 개교 80주년이란 경사에 48년만의 황금사자기 우승이 더해졌다. ‘우리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란 금속 문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선수대표 선서는 지난 대회 각 부별 우승 기수 대표, 장년부 33회 백수현, 청년부 47회 김동휘 동문이 맡았다.

이날 최다참가상은 1위 33회(상금 30만원), 2위 36회(20만원), 3위 44회(10만원)였다.

이벤트로 행운권 추첨이 치러졌다. 구자삼(45회) 동문이 협찬한 메로·킹블

랙타이거새우세트(6세트)와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후배 야구선수 김범석, 신영우 군의 사인볼이 경품이었다. 각 6명과 4명이 뽑혔다.

교가 제창으로 개막식은 종료됐다. 점심으로 주문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동기들끼리 식사를 했다. 식사 시간에 홈런더비 이벤트가 진행됐다. 장년부에선 1위 이윤조(33회), 2위 정원철(40회) 동문, 청년부에선 1위 이향림(55회), 2위 신진수(44회) 동문으로 순위가 가려졌다. 배팅장갑과 사인볼이 상품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막식 참가 동문들에게는 기념품으로 고급타월이 전달됐다.

##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에 이종휘(32회) 동문

### 임시총회·이사회서 승인...“2023년 사업계획 수립단’ 운영”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 겸 집행위직능부회장이 제40대 경남중고 총동창회장 후보가 될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9월 29일(목)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사 및 일반 동문 등 38명이었다. 총동창회 회칙 제2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항에

따르면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결의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이 수석부회장은 지난 8월 31일(수) 오후 서면 월간식당에서 열린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추대되었다.

이 수석부회장은 내년초 있을 차기 총동창회장 선출 시까지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단’을 운영하는 등 업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총동창회

장 임기가 1년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현재 총동창회 집행위직능부회장, 남부산지구 회장, 덕경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용마골프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동창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 2면에 넘김>

## 총동창회 소식

## “평준화 세대의 첫 총동창회장…새 역사 펼칠 터”

이종휘(32회) 집행위부회장, 수석부회장 선임에 소신 밝혀

“총동창회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올해말까지 ‘총동창회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완벽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9월 29일 열린 임시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밝힌 선임 소감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서 “평준화 시대는 오래 되었다. 이제 평준화세대 최초의 회장이 된다.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다. 이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열린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에 추대되자 “제 성격이 뒤에서 먼발치에서 뒷짐 지고 보는 성향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평준화세대 첫 총동창회장 출현을 강조했다.

이날 그는 추대까지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일전에 수석부회장직 제의

를 받았다가 거절했다. 30, 31회를 건너 뛰고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차기 총동창회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 안타까웠고, 또 고민을 많이 했다. 동창회 존속이 문제가 되고 명성에 비해 내부의 힘이 너무 약화되는 느낌이었다. 안되겠다 싶어 감히 ‘(총동창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총동창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수석부회장은 총동창회 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의 구상도 한 자



이종휘 수석부회장

락 드러내 보였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리되 재경동창회 동기 몇 명도 참여시킬

계획을 밝혔다. “재경 동문까지 아우르는 총동창회의 모델을 만들어볼 작정이다. 모양새부터 갖춰 가겠다. 선배 잘 모시고 후배 아껴 멋지게 운영, 역사를 이어가고 발전시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생각이다.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lt;기사 1면에서 받음&gt;

## 총동창회장 연회비 3천만 원으로 조정

## 연말까지 큰 행사 이어져 참여와 협찬 호소

이날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선임 건 외에도 총동창회장 연회비 조정안이 논의됐다. 연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안이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신의 회장직 수행과 관련한 자세한 소회는 정기총회 시 밝히겠다고 말하고, 좋은 계절에 많이 걸어 건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 안건 논의에서 수석부회장 선임과 관련, 김 총동창회장은 “이 동문이 수년간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해

왔다. 넘치는 의지와 추진력은 남이 따르지 못한다. 총동창회가 한결음 더 발전할 것”이라며 추대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월 29일(목)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 및 이사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장 연회비 하향 조정과 관련, 김 총동창회장은 “현 제도 하에선 총동창회장은 연회비 및 각종 찬조 등으로 1년에 1억 원 이상 소요된다. 경제적 이유로 회장에 못 나온다면 곤란

하다. 차기부터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연회비 3,000만 원 조정안을 설명했다. 이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회서 통과된 두 안건은 곧바로 앞의 자리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제52회 기별야구대회 개막식 준비, 노브랜드배 본선 진출, 용마의 밤 개최 등 현안보고가 있었다. 동문 참여와 협찬을 요청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 수가 이날 기준 2,276명(목표 4,000명 대비 57%)으로 보고됐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 기념촬영 후 부평시장 내 밀양집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 총동창회 새 기류 가닥 잡다

## 수석부회장 추대·총동창회장 연회비 축소

##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결정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8월 31일 오후 서면 월강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 치를 주요 행사를 점검하고, 후임 총동창회장 선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과 집행위부회장단에서 이종휘(32회) 김법영(33회) 정운성(35회) 박진용(36회) 박근태(39회) 최영준(41회)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집행위부회장단의 참석률은 낮았지만, 참석자들이 각 기수 대표급 인물로 차세대 주자들이라 중량감 있는 회의가 되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한 지 1년 8개월이 되었다.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선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임기 내 치러야 할 일들을 잘 체크하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간단한 인사말

을 하고, 곧바로 회의를 주재했다.

## ■ 주요 행사 경과보고

올해 치른 각종 주요 행사 및 성과들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소개되었다. 보고된 11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제24회 총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 △경남고 야구부 제76회 황금사자기 결승 응원단 구성 상경 응원 △제56회 동기회 창립 총회 개최 △용마장학회 이사회 △용마산악회 100대 명품산행 100차 산행 종료 △총동창회장배 용마당구대회 개인전 개최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해단식 △신세계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선수단 출정식 △제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개최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준비모임.

## ■ 수석부회장 선임 및

차기 총동창회장 연회비 조정안 김 총동창회장은 “올해 초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차기 총동창회장 후보인 수석부회장을 맡을 동문을 찾지

못했다. 30, 31회는 공식적으로 ‘불가’를 통보해왔다. 선배기수도 거론은 됐다. 이러던 차에 32회 이종휘 동문이 ‘큰 뜻’을 내어 ‘맡겠다’고 나섰다.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되었다”면서 저간(這間)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장 연회비와 관련, “회장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총동창회장의 연회비를 3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한다”면서 “총동창회장에게 음으로 양으로 찬조를 기대한다. 불요불급한 찬조는 없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총동창회장의 연간 지출액이 연회비 포함, 4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 ■ 총동창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동창회보 지면발행 존속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홍보 미비, 업데이트와 지연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동



차기 총동창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동창회보와 더불어 동문간 언로(言路)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서 홈페이지 쇄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와 관련, 올해 말까지 3천명 돌파를 목표로 각 기수별 호응을 독려키로 했다.

동창회보 지면 발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동창회보는 상징성이 있으며, 선급하게 추진할 경우 총동창회와 선배기수와의 단절 사태가 우려되었다. 또한 역사 기록 및 축적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 리뉴얼에 맞춰 ‘앱’을 만드는 방안이 제기(박근태 부회장)됐다. <기사 3면에 넘김>

# “명문 전통 자부심 충천, 우리는 ‘평생 야구인’”

## 퇴약별 도열에 우산까지 등장

○…개막식이 거행되는 동안 도열 선수단에서 우산이 등장했다. 퇴약별에선 최고의 방어책이었다. 유비무환이었다. 행사 직전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은 “너무 더워 고참 선배님들을 운동장에서 있게 하는 게 무리일 것 같다”고 말하기도. 이에 대해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장에 서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어떤 불상사도 없었다.

## 갑작스런 주전 부상으로 기권패

○…이번 대회에서 1차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권팀이 2개가 나왔다. 46회와 49회이다. 각 상대팀 45회와 52회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했다. 갑작스런 선수 수급 및 주전 선수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한 기권이였다.

## 유머 감각의 신동훈 동문, 잇단 사회

○…이날 사회를 맡은 신동훈(38회) 동문은 남다른 유머 감각을 소유한 인재이다. 순발력이 뛰어나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



3년 만에 재개된 제52회 기별야구대회 첫 경기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월 2일 치러진 사하지구동창회장 이취임식 때 사회를 맡아 진행을 잘해 이번 행사의 사회 요청을 받았다.

## 차세대 프로 레전드 첫 사인볼

○…이날 경품 및 홈런더비 상품으로 등장한 사인볼은 2023 프로야구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을 받은 경남고 야구부 신영우 투수와 김범석 포수의 것이다. 사회자는 “이번 사인볼은 차세대 프로야구 레전드의 첫 사인볼이다. 가치가 있다”라고 멘트를 했다. 신 군은 NC, 김 군은 LG로 지명됐다.

## 의외의 인물, 홈런더비 출전

○…개막식 이벤트 홈런더비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담한 체구의 허부남(37회) 사하지구동창회장이 방망이를 들고 맨 먼저 출전한 것이다. 배포(排布)는 홈런감이나 실제 타격력은 처졌다. 하지만 허 동문은 “그래도 안타 2개는 쳤다”며 긍정의 평가를 내렸다. 귀갓길에서 허 동문은 “동기회 야구단에서 부동(不動)의 2루수”라고 자랑했다. 이 순간 사회자 신 동문은 “나도 부동의 2루수이다. ‘움직이지 않는’”이라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 협찬금 적어 총동창회 예산 투입

○…이번 대회의 협찬금 전체 액수가



개막식 이벤트 홈런더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예상 밖으로 저조해 총동창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드문 일이 발생했다. 9월 28일 현재 현금협찬(17명) 950만 원과 물품협찬 1명뿐이라 총동창회는 300만 원의 예산을 불가피하게 투입했다. 예년의 경우 많은 협찬으로 흑자대회를 기록, 총동창회 예산 집행에 도움을 줬는데 이번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잦은 기부로 피로감이 쌓였다고 지적하기도.

지난 51회 대회 때는 현금협찬(28명) 1,570만 원, 물품협찬 6명이었으며, 제 50회 대회는 ‘반세기 대회’라는 의미가 커서 현금협찬(50명) 2,880만 원, 물품협찬 16명을 기록했다.

## 개막전 44회 승리

○…이날 오후 3시부터 44회와 48회간 개막 첫 경기가 벌어졌다. 경기 전 시구 및 시타 행사가 있었다. 시구에 프

로야구 롯데 투수 출신인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이, 시타에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각각 맡았다. 개막전 경기에서 44회가 승리했다.

## 대표자회의서 대진표 추첨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대표자회의가 지난 9월 1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 참가 의사를 가진 기수 대표 30여명이 자리해 대회요강을 듣고, 대진표 추첨식을 가졌다.

대회 집행위원장인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이 요강을 설명하고, “코로나 19로 다소 늦게 개최 결정을 내려 준비가 부족한 점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스트라이크 존을 기본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 1개 정도로 상하좌우 범위를 넓이기로 합의를 했다.

## ■향후 주요 행사 일정

△제5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총동창회 주최 6회 동기회 졸업 70주년기념 홈커밍데이(미정) △홈커밍데이 기수 일정 ●16회-동기 여행 ●26회-10월 15~16일 경부야구이벤트+시그니엘 만찬 ●36회-12월 17일 롯데 호텔 ●46회-10월 29~30일 코모도호텔 ●56회-12월 3일 목장원 △야구후원회의 밤-12월 5일(월) △용마의 밤-12월 8일(목) 서면 롯데호텔 △용마당구대회 단체전-12월 중 개최.

제5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 협찬금(품) 2022년 9월 27일 현재 기준

후원	현금 후원			물품 후원		
	기수	이름	금액(만원)	기수	이름	물품 내역
후원	29	김대욱	200	45	구자삼	메로 킹블랙타이거 새우세트 6세트
	25	박종찬	100			
	26	박상호	50			
	28회 동기회					
	32	이중휘	50			
		김상권	50			
	33	최웅남	50			
	33회 동기회					
	37	허부남	50			
	42회 동기회					
	43	김영휘	20			
	47	정신	100			
	경미회					
	경야회					
	덕형리그					
	사하지구					
	용마골프회					
<b>총액</b>			<b>950</b>			

## <기사 2면에서 받음>

1년 전 논의되다 중단된 논의를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모교 80년사 발간 마무리 현황

이 사안에 대해 모교 80년사 편찬위원장인 박 고문이 설명했다. 총동창회가 전담하는 학교사는 현재 교열 작업 중에 있으며, 10월말~11월초 인쇄, 연내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사는 경남중편과 경남고편을 합본하여 1권의 책으로 발간기로 했다. 재경동창

회가 맡은 동창회사는 연말 발간 예정이며, 별도로 동문 인물열전 발간이 추진 중에 있다.

## ■모교사랑기금 모금 현황

현재 모금액이 8억2천만원이고, 이 중에서 김 총동창회장과 박 고문이 5억4천만원을 냈다. 김 총동창회장은 “호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모교에 감사하는 마음과 여유가 있으면 기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금이 용마장학회로 들어갈 경우 사용처 제한과 모교 지원에 있어서 적극성과 시의성 문제 등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총동창회가 접수하는 영수증 미발행 기부금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 ■2022년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납부현황

올해 기별분담금과 야구후원금 납부현황은 이날 현재 77%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미납 기수는 납부를 독려키로 하고, 이전 연도 미납금은 소급해서 받기로 했다.

### 기별야구대회 개막식 화보

# “우정과 화합으로 엮은 ‘가을 야구’ 참맛 보자”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51회 대회 우승팀이 우승기를 각각 반납하고 있다.



기별야구대회 개막식 선수 및 동문들이 도시락을 들고 있다.



기별야구대회 개막식 참가자에게 전달할 선물과 도시락.



개막식에서 도열한 선수단을 뒤에서 본 전경.



기별야구대회에 출전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 동문인 강서구리틀야구단 이정우(51회) 감독과 이태수 경남중 야구부 선수(1학년-투수&외야수).



행운권 추첨에서 사인볼에 당첨된 동문(가운데는 옥동훈(25회) 동창회관장).



개막식최다참가기수위로부터 1위 33회, 2위, 36회, 3위 44회.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기타를 하고 있다.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이 시구하는 모습.



제52회 기별야구대회 개막전 출전의 영광을 안은 44회 (왼쪽)와 48회. 승부는 44회의 승리로 끝났다.

■경남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 “열린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통·교감하며 꿈 키운다”

## 덕형관~체육관 완만한 보행전용 공간 구상...과학관·본관 완성도 높게 개조

설계 맡은 어반엑스 대표 오성훈(30회) 동문 설명

부산시교육청 예산 130억원이 투입될 경남고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노후된 교사(校舍)를 미래형 열린 학습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킬 이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설명회가 지난 9월 16일 오후 경남고 국산관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사업의 설계를 지난 7월 중순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반엑스 건축사무소의 대표 오성훈(30회) 동문이 이날 직접 설계안과 관련된 소상한 설명을 하였다. 전국적 현상공모에 동문 건축사무소가 당선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교 구성원으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동문 참가자는 이영학(26회) 용건회 고문, 현웅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서강태(30회) 전 경남고 교장, 이종휘 남부산지구동창회장, 정현상(이상 32회) 용건회 수석부회장, 김경곤(38회) 덕경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고의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은 본관, 과학관, 체육관, 국산관 등 4개 건축물이며 중앙정원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8월말 기본 설계 완료, 11월말 최종 설계 완성, 2023년 초 착공, 1년 2개월 공사 진행,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다.

이날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은 되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의견개진 시간이 없었다. 교육청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7월 중순 설계 사무소를 확정지었지만, 학교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이날 참석자들에게 많은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오 대표는 먼저 개괄적인 설명에서 “학교환경이 자연스럽게 훌륭하다. 오래된 학교로서 역사와 기억들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의 상징인

덕형관에서 걸어서 자연환경인 중앙정원을 거쳐 체육관과 국산관까지 좀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보행전용 공간을 구상했다. 이 길의 높이에 따라 구덕산 등 학교 주변 환경들을 조망할 수 있는 설계이다. 건물 외부의 좋은 환경과 내부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형과 관련해 오 대표는 “덕형관이 흰색이고 등근보존건물이다. 나머지 건물들이 대비를 이루며 각자의 특성을 가지되 잘 어울릴 수 있게 하겠다. 신관은 내진 문제 등 괜찮다. 과학관, 본관은 내진 보강을 하다 보니 구조적인 면에서 난잡한 실정이다. 완성도 있는 건물로 손보겠다. 과학관, 본관동은 계단이 높아 불편해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평 테라스 난간이 높이에서 압박감을 준다. 완화 시킬 생각이다. 과학관의 내진 기둥들을 조형적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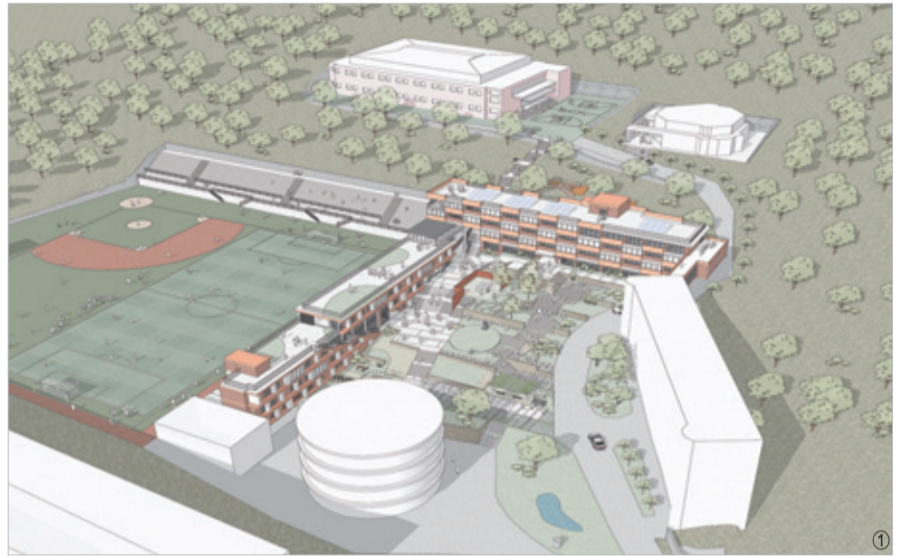
이태석 신부 동상, 오래된 등나무,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 성찰의 집 등이 정원을 이루고 있는 멋진 나무들과 함께 좋은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늘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덕형관에서 체육관까지 열린커뮤니티 코리더(corridor)를 조성해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 외부환경을 ‘기억 매개물’로 엮어진 교육적 환경장소로 만든다는 게 설계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반엑스의 설계도면에 나타난 계획의 주요점을 요약한다.

■정원의 재구조화=3종류의 외부공간(정원)-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진입정원, 중앙정원, 솔숲정원-을 유기적으로



경남고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를 맡은 오성훈(30회) 동문.



①



②



③

- ① 리모델링 이후 경남고의 전체 전경 조감도.
- ② 덕형관 쪽에서 본관, 과학관, 중앙정원을 바라본 조감도.
- ③ 운동장에서 바라본 과학관 뒷면과 본관 옆면 조감도.

연결한다. 중앙정원은 수평 조경담으로 레벨차이를 자연스럽게 완화해 생태학습장화 한다. 본관동 진입계단은 조경과 일체화로 위압감 해소를 추구한다.

■열린 커뮤니티 코리더 계획=내부공간과 정원 사이에서 각 건물 간의 연결과 각 건물의 커뮤니티 영역들과 연계하면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에 개방을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부여한다.

■공간혁신=본관 건물의 운동장 쪽을 확장해 별별공감, 과학관 내에 커뮤니티라운지를 각각 뒤 다양한 학습과 경험이 가능하고 창의

융합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학생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본관과 과학관 연계 지점을 다목적 학생휴게마당을 조성한다.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①과학관 복도=정원 방향인 남쪽보다 운동장 방향인 북쪽으로 하자. (답)열린교육과 커뮤니티 코리더를 고려해 남쪽이 좋겠다.  
 ②과학관 외부 계단=커뮤니티 코리더와 연계되나 우천 시 불편할 것 같다. (답)좋은 점, 불편한 점이 있다. 특성을 살리되 미끄럼 방지 기능을 넣는다.  
 ③과학관 옥상 테라스화=개방하는데 안전사고 우려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떨까? (답)교육청 지적도 있었다. 안전 우선으로 조정될 것 같다. <기사 6면에 넘김>



경남고 리모델링 사업 학교 구성원 설명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80년 만에 이뤄낸 과업, 큰 보람 있었다”

## 모교 80년사 편집위원회 해단식…“자부심 고조”



‘모교 80년사 편집위원회’ 해단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 ‘모교 80년사 편집위원회’가 지난 8월 10일 오후 부산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장소였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총동창회관 회의실에서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총동창회가 주관하여 편찬하는 학교사편 발간을 앞두고 미리 갖는 해단식이었다.

이날 해단식은 학교사편 완성본을 탁상 위에 두고 갖는 게 아니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기존 작업에 대해 매듭을 짓고, 마무리 작업의 방향 설정과 함께 모교사에 길이 남을 과업을 완수하게 된 노고를 스스로 치하하는 의식이었다. 80년 만에 대역사(大役事)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찬(25회) 편찬위원장과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

요섭(27회) 박종기(28회) 서강태 정해석(이상 30회) 편집위원, 이번 편찬사업의 재정을 관리한 옥동훈(25회) 총동창회관장, 편찬작업에 협조와 지원을 보탠 김대욱 총동창회장, 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사무국원 송은애·이지인 씨 등 모두 14명이 참가했다. 김형석(16회) 편집위원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이 자리서 박 편찬위원장은 80년사 발간 작업의 총평성의 맺는말을 했다. 박 편찬위원장은 “이 작업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예산 2억3천만원을 확보, 잘 컨트롤해서 온 좋게 끝나게 되었다. 편집위원 7명의 봉사정신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간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쌓였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곱 분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에 갖게 된 엄청난 자

부심은 각자의 여생을 아름답게 엮어갈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편집위원회 해단식에 초점을 맞춘 행사임을 고려, 참석 편집위원들은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각자의 소회를 밝혔다.

김 편집위원은 총동창회 사무국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교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훑어볼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지 말고, ‘옥동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 편집위원은 “박 편찬위원장이 큰 일을 해냈다. 김기열 선배가 김형석 편집위원장을 대신해서 편집위원회를 묵묵히 이끌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과업을 해내서 기분 좋다. 경중팀 3명 열심히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 편집위원은 “그동안 여러 선배, 동

문들 만나보니, 70년사를 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많은 자료와 증언들이 사라져 안타까웠다. 이런 상황에서 80년사를 (편찬)해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편집위원은 “박 편찬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이 거둔 위업이다. 어느 세대보다 큰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00년사, 150년사를 만들 후배들에게 물려 줄 위업을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좋은 선배’가 되었다. 보람 있다”고 말했다.

서 편집위원은 “모교인 경남고 교장 출신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정년퇴직 후 쉬려는데 참여요청이 와 물리칠 수 없었다. 함께한 긴 작업 시간 멋진 선배들과 일해서 보람 있었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정 편집위원은 “늦게 참여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업 완수에 이름을 얻게 돼 감사하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교사 원고료 산정 방식이 수정되어 발표됐다. 애초에는 페이지당 얼마씩으로 책정되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잔액 분배 방식으로 하향조정됐다.

한편 이 자리서 전 편집위원은 김 편집위원이 그동안 대단한 열정으로 팀을 잘 이끌어 온데 대해 감사의 표시로 원고료 10% 상당의 금일봉을 전달했다. 부인과 의논해 내린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김 편집위원은 감사의 인사를 한 뒤, 금일봉 전액을 작업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무국원에게 보답의 인사라며 전했다.

<기사 5면에서 받음>

④과학관 내 공간 배치 문제=효율적으로 조성하나 토론학습실이나 인문학습공간 부족하다. (답)인문 관련 커뮤니티 라운지, 세미나실 등 활용이 가능하고, 별별공감 등 학교공간 전체를 정비하면 두루두루 활용할 공간이 있겠다.

⑤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설계상 경사로와 계단이 많다. 이동 편의 수단 추가 가능한가? (답)엘리베이터는 예산 문제로 논의해 보겠다.

⑥운동장 외곽 망 시설=운동장에서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는? (답)망을 설치할 하되 보기 좋게 하겠다.

⑦과학관 저층의 관리 문제=1, 2층이 땅에 묻히는 느낌도 있다. 환기와 곰팡이 발생 문제 대책은 있는가? (답)곰팡이·결로 등에는 대비한다.

한편 설명회를 마친 뒤 오 대표와 총

동창회 및 학교 측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현 사무총장은 “덕형관을 역사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사관 조성과 이번 리모델링 사업이 연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건회 고문은 “리모델링 계획이 우수해 보인다. 학교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겠다. 덕형관은 세계 유일의 원형 교육시설로서 곧 역사관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될 계획이다. 이태석 신부 동상, 대통령 흉상, 호국영령비, 성찰의 집 등과 잘 연계 되어야 한다. 개인 비석과 동기회 시설물들도 공적 목적으로 이참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장은 “시설물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리모델링 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겠다. 총동창회에서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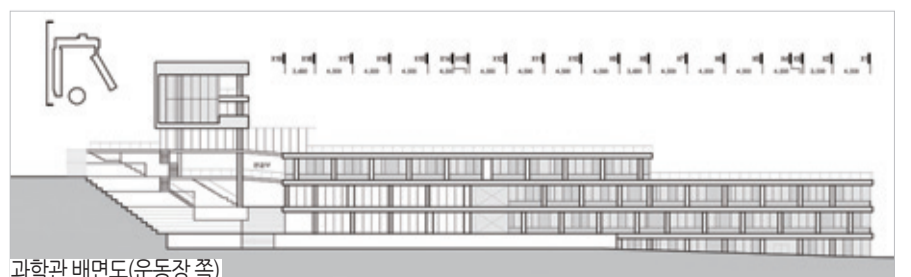
오 대표는 “좋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별공감 실내 투시도



커뮤니티 라운지 실내 투시도



과학관 배면도(운동장 쪽)

# 부모 학력도 기록한 50년 전 학생교육 환경조사서

**‘가정방문’ 폐지로 점차 사라져  
출신지·숙소로 도시 이전 확인  
영어, 수학, 체육 순 학과 흥미**

경남중학교는 서구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도심에 자리하고 있  
는 학교 주변에 행정관청, 대학교, 병  
원, 역사 유적지들이 널려 있다. 교사  
들은 역사와 전통이 찬란해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보  
내고 싶은 학교로 경남중학교를 꼽는  
다. 지역주민들도 경남중학교가 전통  
명문 학교로서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도 인성  
및 진로 제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경남  
중학교 교육활동은 여타 중학교 구성  
원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  
점으로 경남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  
해 이사까지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총동창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 해외탐방 연수는 주변 학교와 학  
부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  
이다.

## 1973년도 교육계획서 자료

### (1)출생지별

구분	부산	서울	경남	경북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외국	계
인원	1211	38	357	100	15	16	10	44	17	13	8		1,829

### (2)숙소별

구분	자택	친척	아는 집	하숙	자취	고아원	계
인원	1761	50	5	1	7	5	1,829

### (3)부모 유무별

구분	부모	부친만	모친만	부모없음	의부	계모	계
인원	1581	19	193	21	1	14	1,829

### (4)학과 흥미별

구분	국어	지리	역사	공민	수학	영어	물상	생물	체육	실과	음악	미술	반공 도덕	계
인원	182	189	210	52	242	278	107	129	229	79	44	66	22	1,829

### (5)보호자 학력별

구분	대졸	대퇴	고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국퇴	한자 해득	한글 해득	무학	기타	계
인원	250	37	393	53	468	52	409	34	33	33	19	48	1,829

### (6)종교별 통계

구분	학생						부모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	무	계	기독교	유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	무	계
인원	220	37	316	9	81	1166	1,829	142	54	785	13	88	747	1,829

경남중·고 80년사를 정리하면서 나  
름 눈에 띈 통계가 있어 소개한다.

학교에 보관 중인 교육계획서 중 가  
장 오래된, 1973년 교육계획서 내용으  
로 이 지면에 게재한 각종 표물들이다.  
(1)출생지별 (2)숙소별 (3)부모 유무별  
(4)학과 흥미별 (5)보호자 학력별 (6)  
종교별 (7)경남중학교 재학생들의 초  
등학교 출신별 통계 등 50년 전 자료이  
다. 당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을 조사해 생활지도에 활용한 것이다.  
각종 표물의 조사 항목들은 1980년

대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방문 활동의 폐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라졌다.

경남중학교는 1973년 당시 전형시  
험을 거친 학생과 평준화 입학 학생이  
섞여 있었다. 초등학교 출신별 통계는  
가장 오래된 1973년 내용과 2022년 내  
용을 함께 게재, 비교해 보도록 했다.

출신지 조사에서 당시 경남중학교에  
는 전국 각지의 학생이 모인 것으로 보  
인다. 전교생 1,829명 중 부산지역 출  
신이 3분의 2이며, 나머지는 전국에 분

포돼 있다. 그런데 숙소 조사에는 96%  
가 자택 거주이다. 출신지와 비교해 보  
면, 타지에서 부산으로 많이 이전해 왔  
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유무 조사에서 14% 가량이 결  
손가정이었다. 당시 학교 차원의 지원  
여부는 알 수 없다. 학과 흥미도 조사  
에서 영어 수학 체육 역사 순으로 나타  
났다. 보호자 학력 조사에서 중졸 이하  
가 53%를 차지했다. 일제 강점기에 태  
어난 부모들의 학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전반기에 경남중에 입학  
한 학생들은 토성초등학교, 동신초등  
학교, 남부민초등학교 등 34개교의 초  
등학교에서 지원했다. 1973년(33회)  
이전 경남중학교 교육계획서를 찾을  
수가 없으며, 33회 이전(1회-32회)의  
통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대는 대신초등학교, 구덕초  
등학교, 구학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에  
서 진학했으며, 1970년대와 비교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입학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일초등학교는 1998년 남일초등학  
교와 동광초등학교를 통합하여 남일  
초등학교 자리에 신설됐다. 대청동에  
자리한 이 학교는 경남중학교가 1945  
년부터 1946년까지 토성동 현 위치로  
오기까지 공부한 곳이다.

학생수도 1973년도 1,829명에서  
2022년도 429명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방증하고 있다. 비록 학생수는 줄어들  
고 있으나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은 계  
속 이어질 것이다.

## (7)출신학교별 현황 ①1973학년도

교명	사하	다대	낙동	장림	신평	감천	괴정	대교	봉학	신선	동삼	청학	영선	남항	영도	대평	대창	봉래	동광
1	15	5	6	11	14	16	6	21	21	13	14	32	25	22	28	27	12	25	22
2	17	6	4	5	5	13	2	11	17	12	11	15	20	39	21	18	18	31	13
3	10	3	2		9	7	10	7	22	6	11	22	26	14	15	22	11	27	17
계	42	14	12	16	28	36	18	39	60	31	36	69	71	75	64	67	41	83	52

교명	남일	남성	보수	구덕	동신	대신	서대	화랑	부민	아미	초강	남부민	토성	총무	송도	기타	총계
1	22	6	18	12	33	26	6	21	29	11	14	38	38	20	11	2	642
2	25	7	16	21	39	30	7	28	23	21	11	31	30	21	15	3	606
3	41	9	26	14	37	26	5	29	23	14	9	28	43	16	6	14	581
계	88	22	60	47	109	82	18	78	75	46	34	97	111	57	32	19	1,829

## ②2022학년도

교명	대신	구덕	남성	동신	구학	화랑	부민	토성	아미	남부민	천마	송도	보수	광일	승학	괴정	기타	계
1	11	17	1	8	16	2	5	4	5	2	4	2	3	5	12	15	10	122
2	14	14	0	14	16	3	6	10	4	3	5	4	11	5	5	20	19	153
3	12	6	2	10	17	4	4	19	3	7	5	8	4	5	5	19	24	154
계	37	37	3	32	49	9	15	33	12	12	14	14	18	15	22	54	53	429



글=이요섭(27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  
원회 편집위원

# 고 배정석(11회)·정운(13회)·정현(14회)·정희(16회)·정호(20회) 5형제 동문 부모님 은혜 기리려 모교에 1억 원 기부

“아버지의 지극한 교육열, 어머니의 사랑·헌신 새기고 싶었다”  
경남고에 기부 약정...책결상 등 구입 예정



지난 9월 23일 오전 경남고 교장실에서 모교발전기금 1억 원 기탁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규정(16회) 상임고문, 백영선 경남고 교장, 주영자 씨, 배정현(14회), 배정희(16회) 동문, 신영례 씨, 박종찬(25회) 고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저희 형제가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고 싶는데 작고하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경남고 교장실로 걸려온 전화였다. 형제는 경남중고인(人) 5형제였다. 아들 5형제 중 위로 4형제는 경남중고를, 막내는 경남중을 졸업했다. 지난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특별상으로 시상한 ‘직계가족 4형제 이상 동문’ 수상자 명단에는 없었다. 배정석(11회) 배정운(13회·S&M미디어 회장) 배정현(14회) 배정희(16회) 배정호(20회) 동문이다. 맏이 배정석 동문은 20여년 전 고인이 되었다.

지난 9월 23일 오전 경남고 교장실을 5형제 중 두 형제 부부가 방문했다. 1억 원 기부 약정서를 쓰기 위함이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온 배정현, 주영자 부부와 서울서 온 배정희, 신영례 부부가 함께 모교를 찾았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이 일행을 영접했다. 교장실에 가기 전 운동장에 들러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전광열(44회) 야구부 감독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이날 기부 약정식에 송규정(16회) 총동창회 상임고문과 박종찬(25회) 고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상임고문은 배정희 동문과 친한 동기생이고, 박 고문은 2019년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워싱턴지역동창회를 방문했을 때 배정현 동문과 만났던 인연으로 초대되었다.

교장실에서 두 형제는 기부 경위를 털어놓았다. 기부금 1억원은 5형제의 우애로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 기부자를 부친 고(故) 배복만 씨와 모친 고 서말남 씨로 희망한 것은 부친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교육열과 아들 5형제와 딸 1명을 훌륭하게 키운 모친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기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배정희 동문이 순간 울컥이며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았다.)

맏이는 서울대 문리대(독문과), 둘째는 서울대 상대, 셋째는 연세대 의대, 넷째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 막내는 경남중에서 경기고로 진학하여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딸 형제(맨 밑에서 두 번째) 배정희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이다.

이날 두 형제는 고인이 된 맏형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했다. “형제 중 제일

똑똑했다. 당시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전국 3위를 했다. 경남중 1등으로 입학, 이영순 교장이 입학식 날 모자를 씌워 주던 기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배정석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장학생으로 독일 뮌헨대에 유학한 후 성신여대 교수로 활약했다.

5형제의 전공이 각 분야로 다양하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내리’는 부친의 깊은 뜻이 반영된 진로 선택이었다고 한다. 부친 이야기가 더해졌다. 아버지는 중졸 출신으로 가난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한다. 부평동에서 살다 자식교육 때문에 학교 가까운 동대신동 1가로 이사했고, 막내를 전국 최고의 경기고에 보낸 뒤엔 서울로 이사했다. 형제는 ‘맹부(夫)삼천지교’였다고 웃었다. 6·25동란 발발 당시 부민국민학교가 군에 징발 당하자, 경영하던 책가방 공장을 교사(校舍)로 제공할 정도로 학생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갔다. 배정희 동문은 “어머니는 위대했다. 무엇보다 아들 딸 포함 6형제를 8년 6개월 만에 다 낳으셨다”면서 “어머니 생전에 많이 놀렀다”고 기억했다. 어릴 적 밥상에서 음식 다툼을 벌여지면, 어머니는 “저울을 갖다 놓고 달아서 놓아줄까?”라고 다독이면서 우애를 키워주셨다고



5형제 동문의 어릴 적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정석(11회)·정운(13회)·정현(14회)·정희(16회)·정호(20회) 동문, 어머니 서말남 씨, 아버지 배복만 씨, 여형제 경희 씨.



5형제 동문의 가족이 함께한 대가족 사진.



경남고 발전기금 1억 원 기탁식 참가자들이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

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영근 형제애가 대단하다고 자랑한다.

이날 기부금 약정서에 대표로 서명한 배정현 동문은 연신 “기부금이 약소하다”면서 “5형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싶었다. 조용히 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만 알고 가려 했다”고 말했다.

배정현 동문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제대 후 1969년에 도미(渡美),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활약하다 2005년도에 은퇴했다. 도미 당시 베트남전쟁으로 미국에 의사 수가 부족했고, 한국의 의료 수준과 재정적 문제가 겹쳐 많은 인재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의과대 동기생 62명 중 40명이 미국으로 갔을 정도였다고.

그 시절의 고생담도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비행기표는 보내왔다. 아내똥은 나중에 갚아야 했다. 손에 200달러를 쥐고 있었다. 미국으로 가던 중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밥통 등 몇 가지 생필품을 사고 나니 50달러가 남았다. 결과적으로 50달러를 들고 미국에 이민 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은퇴 후 골프 등 운동을 즐기며 산다. PGA급 골퍼다. 1~2년에 한번은 형제들 보러 한국에 온다”면서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이야기했다. (골프장 내 집이 있다고 배정희 동문이 전해 준다.)

배정희 동문은 “박종찬 회장이 워싱턴까지 와서 동문들을 만나고 난 뒤 형님(배정현)이 ‘5형제 기부’를 자주 비쳤다. 요즘은 학업성적도 별로라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도 했다.

<기사 9면에 넘김>



어릴 적 부친과 해수욕장을 찾은 5형제 동문.



# 기부자 리스트

##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 대 옥	5억1400만원			11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 중 찬	2억4200만원			940만원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김 진 철	1억1400만원			1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12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1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500만원			2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125만원	
7	24	박 흥 규	5000만원				
8	24	전 용 우	50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500만원	
10	30	김 현 태	5350만원			120만원	
11	30	윤 성 덕	6350만원			100만원	
12	37	허 부 남	5500만원			150만원	
13	38	권 두 성	7200만원			15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1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200만원			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300만원			5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1	박 중 호	3450만원				
13	31	홍 성 수	3320만원			50만원	
14	33	김 법 영	4300만원			80만원	
15	35	장 인 화	3400만원				
16	36	박 진 용	3150만원			100만원	
17	38	정 재 형	3050만원			60만원	
18	39	박 근 태	3170만원			50만원	
19	40	우 영 환	3800만원			200만원	
20	44	탁 경 환	3500만원			30만원	
21	47	정 신	3510만원			13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7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흥	1600만원			3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7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3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50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2	이 중 휘	2010만원			2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4	33	최 웅 남	1800만원			470만원	
25	34	박 철 웅	1050만원			20만원	
26	34	이 진 호	1800만원			300만원	
27	41	이 양 걸	800만원			2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승 우	500만원				
5	17	조 중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흥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0	박 병 철	500만원				
10	23	이 병 찬	400만원			150만원	
11	23	이상 수	650만원			120만원	
12	25	김 익 수	800만원			1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2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3	25	박 세 철	580만원				
14	25	손 기 천	550만원				
15	25	송 정 규	550만원			30만원	
16	25	이 명 철	710만원				
17	26	김 상 현	500만원				
18	26	박 재 옥	500만원				
19	26	박 효 대	500만원				
20	26	하 원 규	500만원				
21	27	김 태 우	550만원				
22	27	문 두 찬	600만원			30만원	
23	28	구 영 소	500만원				
24	28	이 원 철	950만원				
25	28	최 강 호	500만원				
26	29	이 석 조	600만원				
27	30	김 해 곤	700만원				
28	30	윤 인 태	610만원			20만원	
29	30	이 명 건	530만원				
30	30	이 학 수	700만원				
31	30	허정택(미)	615만원				
32	31	남 기 태	700만원			10만원	
33	31	류 명 석	680만원			100만원	
34	31	오 민 일	600만원			50만원	
35	31	이 병 태	600만원			50만원	
36	31	정 철 수	500만원			1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860만원			30만원	
39	41	김 정 태	510만원				
40	41	최 영 준	510만원			30만원	
41	44	안 병 규	600만원			130만원	
42	55	전 민 기				800만원	
43	64	표 중 빈	500만원				

##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2022년 9월 27일 작성

개인			
5회	5	상 기 중 김 영 한 김 병 무 진 도 영 임 성 업	250
6회	1	오 영 은	100
7회	1	김 삼 현	500
12회	2	배 중 섭 조 한 기	30 3
13회	1	김 성 훈	10
15회	1	손 부 흥	100
17회	2	이 수 창 장 호 남	100 100
18회	1	하 영 일	30
23회	1	김 성 태	100
24회	4	곽 두 희 노 상 우 임 민 호 전 용 우	100 50 50 5,000
25회	8	곽 동 원 김 옥 철 김 중 현 김 진 철 박 중 찬 오 양 득 옥 동 훈 정 철 수	50 30 100 5,000 10,000 30 20 100
26회	1	박 상 호	1,000

개인			
27회	1	이 요 섭	100
28회	9	김 용 진	50
		노 영 현	100
		박 성 권	20
		박 중 기	100
		백 영 호	100
		엄 재 흥	100
29회	7	이 원 철	50
		임 재 덕	50
		한 명 재	100
		김 대 옥	44,000
		김 영 찬	100
		김 중 명	100
		이 문 열	200
		이 선 호	100
		차 의 수	100
		현 응 열	100
30회	1	김 현 태	2,000
31회	1	김 중 규	31
32회	1	이 중 휘	1,000
33회	6	김 기 산	30
		김 윤 성	50
		백 수 현	50
		이 동 근	100
		이 형 근	30
		최 웅 남	800
34회	2	이 진 호	800
		박 철 웅	550

개인			
36회	1	정 윤 희	30
37회	1	이 수 환	30
38회	3	김 태 호	30
		김 연 규	30
		박 이 현	100
39회	4	박 중 국	10
		백 기 현	50
		윤 원 옥	100
		정 순 환	100
40회	1	한 수 열	100
41회	6	김 영 철	100
		김 인 수	100
		김 정 태	410
		이 양 걸	200
		최 영 준	410
		한 창 희	50
42회	1	정 용 중	30
43회	2	김 민 석 김 진 수	10 20
44회	2	배 봉 건 전 광 열	30 50
45회	3	권 우 일	30
		박 현 승	20
		조 태 성	450
46회	1	정 수 찬	20
47회	3	감 기 환	35
		정 신	300
		하 중 건	10

개인			
48회	1	김 춘 호	30
50회	1	정 재 우	100
		김 민 철	100
52회	3	김 상 곤	10
		김 현 진	10
53회	1	김 권 우	30
54회	4	김 영 빈	10
		임 길 환	10
		정 준 섭	30
		조 중 완	100
55회	2	이 옥 한	10
		전 민 기	800
56회	1	류 은 재	20
58회	2	오 응 경	10
		주 재 형	10

# ‘칠순 동기’들 태풍 속 지리산 종주...“놀랍다! 도전정신”

### 24회 경부합동조 9명, 3박4일 등반 횡단조와 벽소령에서 극적 랑데부도 졸업 50주년 뒤늦은 자축 의미 부여 자부심 충전, 한라설악산 오를 꿈꿔

최원주 동문, 종주기 기고

경남중고 24회 본부 및 재경동기회는 2020년 졸업 50주년을 맞아 긴밀한 협의 아래 꽤 많은 행사를 합동으로, 또는 각각 준비해오고 있었다. 여러 행사 중 하이라이트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경부합동으로 우리나라 주요 삼산(三山)을 등정하는 계획이었다.



최원주 동문

삼산 중 한라와 설악은 당일 또는 1박2일로 등반이 가능하나 지리산은 거대한 산군(山群)으로, 칠순에 힘이 들더라도 2박 내지 3박의 종주산행으로 계획된바 삼산등반의 메인 이벤트였다.

2020년 초에 닥친 코로나19로 계획된 모든 행사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2022년 들어 팬데믹이 서서히 엔데믹으로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경부산우들의 의기가 투합하였다. 부산 5인(안형수 대장, 백산흙, 유홍석, 이현우, 최원주) 및 서울 4인(정봉화 부대장, 김영철 산타래회장, 유인환, 서기홍) 등 아홉 대원은 추석연휴 직후 9월 13일을 거사일로 잡았다(정봉화 부대장의 발원이 있었음).

■첫째 날. 오후 늦게 구례 화엄사 입구 숙소에서 경부팀의 만남. 고딩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었다. 거의 고딩 시절과 다름없는 반가운 만남이었다. 인근 식당에서 시원한 국물이 끝내주는 짜리버섯 전골로 저녁을 함께 하며 50여년 세월의 흘러간 우정을 되새기고 내일부터의 힘든 산행에 대비한 주의사항과 격려의 대화를 나누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새벽 4시 기상. 햇반, 시락국, 라면 등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각 대원 하중(荷重) 체크 후 출발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행의 행동지침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중과의 전쟁이었다. 지리산 종주의 첫날 운행은 성삼재에서 벽소령까지 10시간 이상의 힘든 산행이다. 토끼봉 등 몇 구비의 심한 업다운이 있다. 상당한 체력을 요하며 이런 힘든 구간에서 과다한 하중은 신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전체 종주 운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성삼재로 올라갔다. 물경 52년 전 친구와 지리산 종주에 나섰던 기억이 새롭다. 오전 6시 20분 성삼재에 도착. 산행대장이 대오 편성과 등반 중 주의사항 등 지침 공지. 등반을 시작하여 노고단고개(07:20),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만나는 삼도봉(三道峰·10:00), 꽤 힘든 토끼봉(11:25)을 넘어 연화천대피소에 도착(13:20),



지리산 벽소령에서 랑데부한 종주팀과 횡단팀.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24회 산사나이들.

중식 후 열심히 달려 오늘 숙박지 벽소령대피소에 도착(16:20). 오전 산행은 구름이 꽤 드리워져 비교적 시원한 날씨에 산행할 수 있었다. 오후 들어서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능선에 강한 가스(산속의 안개)가 차면서 지리산 종주 백미(白眉)의 하나인 Scenic View(절경)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번 종주산행의 가장 중요 이벤트는 종주조(아홉 대원)와 횡단조(곽두희 부산산우에 회장, 지리산 빠꾸미 김성권 동기)가 벽소령대피소에서 랑데부, 식음을 같이 즐기고 ‘1박 동침’ 후 종주조는 장터목으로 향하고, 횡단조는 하산하는 것이었다. 종주조가 벽소령 도착 불과 3분 후 횡단조가 짜잔! 등장. 모두들 반가움이 컸다. 횡단조가 어렵사리 공수해온 마천 삼겹·목살과 야채·김치 등 ‘보급품’과 ‘연하천생수(소주의 암호명, 대피소 음주는 전면금지 사항)’는 환상적 조합이었다. 맑은 자연 속에서 참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셋째 날. 아침이 맑았다. 6시 기상.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바람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곧 빗방울도 보일 것 같았다. 배낭 패킹 등을 마무리하고 7시 20분 벽소령대피소 출발. 능선상에는 여전히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능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횡단조

와의 헤어짐이 아쉬워 함께 선비샘까지 1시간여 동행하고, 선비샘에서 간이식으로 아침을 때운 후 아쉬운 작별을 고하였다. 뒤늦은 졸업 50주년 기념 경부합동산행에 가세, 이번 산행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 곽두희, 김성권 두 동기에게 아홉 대원 모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선비샘 출발 후 강한 바람과 안개비와 보슬비가 교차해 내리는 가운데 전진 계속. 11시 30분 세석대피소에 도착, 중식 해결. 꽤 이른 시간인 15시 30분 오늘의 숙박지 장터목대피소에 도착. 내일의 정상 등정에 대비한 휴식을 취하고 새벽산행에 대비한 랜턴 등 장비 재점검. 남은 식량 대부분을 동원, 푸짐한 저녁식사를 즐겼다. 연하천생수의 고갈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내일 천왕봉 정상 일출 장관을 보는 것이 모든 지리산 등반인의 희망이겠지만, 오늘밤 날씨와 태풍 ‘난마돌’의 여전한 영향권을 생각하면 기대 난망이다. 혹여 밤새 천지개벽으로 일출을 볼 수 있을까 허망한 꿈속에 잠자리에 들었다.

■넷째 날. 4시 30분 기상. 배낭을 챙겨 대피소 밖으로 나와 보니 짙은 가스가 덮히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가히 악천후였다. <기사 11면에 넘김>

### 창원지역골프대회, 원로들 노익장 과시

창원지역동창회(회장 김정암·29회)가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지난 9월 24~25일(1박2일) 여주시티파크에서 열었다. 3개조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라운딩에서 이경재(13회) 이상신(17회) 등 원로 동문들이 노익장을 과시하

며 건재함을 알렸다. ◇참가자=이경재(13회) 이상신(17회) 김우홍(22회) 한원우 김동연 김정욱(이상 26회) 안정모(32회) 조시형 강승기 이동혁(이상 34회) 김찬수(38회) 박일수(42회).



창원지역동창회 동문 친선 골프대회 모습.



통영지역동창회가 9월 모임을 가졌다.

### 통영지역, 동문 아들 변호사 입직 축하연

지난 9월 21일(수) 오후 통영 일성식당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10월 야유회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모임은 김광철(27회) 동문의 아들 김기남 군(서울대 법학과 졸업)의 서울 한별로펌 변호사 입직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모임 식대는 김광철 동문이 전액 찬조하였다. ◇참석자(왼쪽부터)=주승진(36회) 임경우(53회) 신성찬(25회) 김기산(33회) 배성만(33회) 박일웅(13회) 김광철(27회·모자 착용).

### 남해·하동지역동창회, '회원 응원' 모임

남해·하동지역동창회가 지난 9월 2일 오후 남해읍 한우프라자에서 열렸다. 오랜만에 열린 이날 동창회는 남해군 이동면 소재 길현미술관 관장인 길현수(41회) 동문의 하동 이전이라는 새로운 도

전을 응원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상권(32회) 김병수 송호성(이상 35회) 박준표(38회) 이상열(40회) 길현수(41회) 김영선 한중봉 송대성(이상 43회) 등 9명이 참석했다.



남해·하동지역동창회가 '회원 응원'의 모임을 가졌다.

### 애틀랜타 동창회, 새내기 맞아 '신평'



애틀랜타지역동창회 월례회 모습.

재미 애틀랜타지역동창회가 지난 9월 24일(토) 오후 둘루스 소재 한식당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동문 7명과 가족 2명 등 9명이 참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경남중 41회인 민정기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 월

례회는 새롭고 반가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참석자는 민 동문 외 김태진(19회+부인) 박동철(21회+부인) 김우갑(26회) 권건오(32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동문이다.

#### <기사 10면에서 받음>

간밤의 희망이 허망하게 절망으로 바뀌어 모든 대원들은 우천 대비 비옷과 배낭커버로 방수 대비하고 5시 30분 대피소를 출발하여 정상 등정에 나섰다. 장터목에서 정상 구간은 암릉이 많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모든 대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 비바람은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세졌다. 미묘한 밸런스가 필요한 암릉 구간을 휘청거리며 돌파하였다. 통천문(通天門)을 통과하면서 정상에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마지막 정상 암릉에 올라서자 세찬 비바람이 몸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친다(6:35). 추석연휴 직후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이 겹치고 심한 가스라 비바람이 몰아쳐 장터목대피소의 모든 등산인들이 천왕봉 일출을 포기한 탓일까. 정상에는 우리 팀 아홉 대원과 남녀 2인 한 조가 전부였다.

대원 중 꽤나 힘들게 등정한 대원, 아직 힘이 남아도는 대원, 모두들 한마음으로 "여기는 정상이다"라고 외친 소리는 강한 비바람 소리에 묻혀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우리 대원 외 유일한 남녀 한 조에게 어렵사리 단체 인증사진을 부탁하고 각 대원 개별 인증사진 촬영 후 서둘러 로타리산장으로 하산을 시작하였다(7:00). 이미 날이 밝아져 하산하는 대원들 발걸음마다 또다른 남은 이산(二山), 한라와 설악으로의 염원이 힘차게 찍히고 있었다. 로타리산장에 도착(8:10). 누룽지와 짭조름하게 끓인 황태국을 섞어 아침으로 해결하고 계속 하산. 순두루에 도착하니(10:45) 안 대장이 수배한 스타렉스 버스가 대기 중. 지루한 길을 걷지 않고 덕산에 도착. 3박4일 동안 땀과 먼지로 얼룩진 몸을 깨끗이 하고 환복한 후 오리구이집에서 간만에 제대로 된

식음을 즐기며 종주산행 후일담을 나누었다. 잘된 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특히 한라산, 설악산 등 나머지 두 산에 대한 산행 일정 등을 의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원들. 뿌듯해진 모두의 가슴에서 한라와 설악 등정을 위한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끝으로 이번 산행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으로 큰 힘을 보태준 재경경발위원장 이명규 동기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정보 제공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안형수 산행대장, 본 산행을 발원한 정봉화 부대장, 서울 산타래의 든든한 버팀목 유인환 대원, 후미대장을 맡아 여러 가지 곳을 일을 도맡았던 이현우 대원 및 여타 모든 대원들의 단결과 협조와 희생으로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아홉 대원 모두 정상에 설 수 있었다. 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지역·지구 동창회



사하지구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 사하지구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축제의 밤'

### 코모도호텔서 성대한 파티...동문 등 200명 참석

#### 허부남(37회) 신임 회장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과거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성대한 축제형 지구동창회장이 취임식이었다.”

지난 9월 2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사하지구 회장 이·취임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초청 내빈의 면면하며 참석인원수, 사하지구동창회 행사이면서 중구 영주동에서 치른 점, 참석자 선물 등 지금까지 봐왔던 기존의 행사 사례와는 격을 달리한 이벤트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등록하면서 먼저 와이셔츠 선물을 받아주고 지정 좌석에 자리했다. 각자 좌석에는 대형 선물보따리가 놓여 있어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뷔페식 식사부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는 200명으로 집계됐다. 총동창회 정기총회나 용마의 밤에 육박

하는 수준이었다. 사하구에서 200명이 모여 축제를 즐길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지구경계(?)를 넘었다. 비동문 내빈으로 백영선 경남고 교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김영찬(41회) 강서구청장, 송숙희 부산시장 여성특별보좌관, 김척수 국민의힘 사하갑 당협위원장, 사하구 시의원 및 구의원 등 사하지구 유력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참석동문은 17회(정량부·전 동의대 총장)부터 67회(전명재) 사이 몇 기수를 제외하고 전체를 망라할 정도로 폭이 넓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허부남(37회) 신임 사하지구동창회장의 인맥과 평소 쌓아온 인덕(仁德)의 무게를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신동훈(38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동창회기 입장, 류명석(31회) 사하지구동창회 명예회장의 개회선



허부남 사하지구동창회 신임 회장.

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로 이어졌다. 비동문 내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되었다. 계속해서 동

문 소개가 기수 서열 순으로 진행됐다. 최재혁(36회) 사하지구동창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본의 아니게 4년 가까이 회장직에 있었다. 모임을 지탱해온 회원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 그간의 경험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허 신임 회장에 대해 “동창회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다. 사하지구와 총동창회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미가 사하지구동창회를 발판으로 크게 한 번 날

아 올라라고 격려해주시는 것 같다. 지구동창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세계 최고의 지구동창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허 신임 회장은 ‘매사에 거침이 없는 자유인’으로 묘사 되는 소설 속의 인물 ‘조르바’를 소환하면서, “조르바처럼 열심히 동창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 자리서 허 신임 회장은 백경남고 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축사 순서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허 회장의 스케일과 인맥의 넓이가 가히 역대급이다. 오늘 행사 규모가 총동창회 정기총회 수준”이라면서 허 회장의 밝은 앞날을 기대했다.

서병수(25회·국회의원) 동문은 “허 회장은 추진력이 대단한데, 세계 최고 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정치에 도전해 볼 생각이려면, 나를 찾아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사하당협위원장, 김 강서구청장도 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건넸다.

축하케이크 커팅에 이어 서부원(18회) 동문과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건배사를 했다. 박 고문은 “오늘로서 사하지구가 최우수 지구로 등극했다. 허 회장은 가슴이 뜨겁고 정이 풍부하다. 모교사랑, 후배사랑, 야구사랑의 열정을 갖겠다. 이 열정으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 달라”면서 사하지구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2부 행사는 김경진(44회) 동문의 윗트와 유머 있는 사회로 진행된 용마코스 멤버의 공연 무대였다. 초대단장이었던 정량부 동문이 ‘그라나다(Granada)’, 박근태(39회) 동문이 ‘벳노래’, 조성빈(47회) 동문이 ‘산촌’, 39회 중창단 비타노바와 44회 중창단 라온아제가 ‘성자들의 행진’ ‘찬찬찬’을 불렀다.

공연 중 사회자의 권한으로 행운상품이 전해졌는데, 상품배달자로 선발된 뮤지컬 배우인 김경모 56회 동기회 사무국장이 연기하듯 코믹 배달로 웃음을 자아냈다.



사하지구동창회기를 함께 흔드는 이·취임 회장.



사하지구동창회 신임 회장 취임 축하 장면.

## 중부산지구동창회, 프로야구 단체관람

중부산지구동창회가 지난 9월 14일(수) 오후 프로야구 경기 단체관람 행사를 가졌다. 지구동창회 단위로 단체야구 관람은 처음이다. 이날 롯데와 SSG 경기가 벌어졌다. 13명의 참석자들은 출장하는 동문 선수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등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 보냈다.

이날 롯데 ‘간판’ 이대호(55회) 동문은 선배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며 입장티켓 20여장을 찬조하고, 운동장에서

인사도 했다.  
 ◇참석자(직책 생략)=이영학(26회) 박종기(28회) 현응열(29회) 김종오 김경찬 전영목 김창일(이상 36회) 윤원욱(39회) 성찬기 김신욱(이상 41회) 김현오(42회) 육한수(46회) 이육한(55회).  
 ◇찬조 내역=총동창회 30만원, 이영학(26회) 30만원(2차 계산), 박종기(28회) 20만원, 현응열(29회) 커피, 김현오(42회) CD, 권우일(45회) 플래카드 제작, 이대호(55회) 입장권.



중부산지구동창회가 프로야구 경기 단체관람 행사를 가졌다.

# “한여름 밤바다의 낭만에 젖다”

## 해운대지구, 요트 투어 2차례 가져



요트 프라이빗 투어 참가자들이 요트 위에서 밤벚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문 간 만남과 대화의 장소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운대지구동창회가 지난 8월 정기모임 행사로 제3회 요트 프라이빗 투어를 가졌다. 8월 11일과 18일 두 차례 나눠 실시한 이번 행사는 한여름 밤의 시원한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었

다. 1차 투어는 30회까지, 2차 투어는 31회부터 참가자를 모집했다.

선상행사는 해운대 마리나요트장에서 스피드요트를 타고 광안대교를 거쳐 광안리 앞 바다에서 부산 야경을 즐기며 불꽃놀이와 조출한 선상파티로 짜여졌다. 1차 투어는 연령대에 맞게 투어로

행사가 종료된 반면, 2차 투어는 보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로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각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요트를 타기 전 집결지(1차 풍원장 꼬막정찬, 2차 시골한우시골돼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동반 승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1차 투어 시 식사 후 가진 ‘승선 세리머니’에서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은 참가자들의 호응에 감사를 표하고, 해운대지구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곳은 낯설지만, 더 운치가 있을 것 같다. 한여름 밤 좋은 코스의 향해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승원(41회) ㈜브라보요트 대표 동문의 협조를 받아 시행됐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1차 행사 참가자(직위 생략)=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부부) 강부덕(20회) 김인구(24회·부부) 박종찬(25회) 이영희(28회) 김대욱 현응열(+2인) 김종명 박봉구(이상 29회) 정윤희(36회) 김태호(38회+2인) 윤원욱(39회) G이일해(경남고 2학년 이영서 군부친) \*1차 행사 협찬=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 20만원, 김대욱 10만원, 이일해 20만원+맥주·통닭.

◇2차 행사 참가자(“)=박철웅(34회) 정윤희 장상욱 오명재 김창일(36회) 문귀상 김태호(38회) 김용철(40회+1인) 조영호(44회) 정재우 오유준(이상 50회+2인) 장재환 이승민(56회) \*2차 행사 협찬=박철웅 10만원, 문귀상 10만원, 정재우 30만원, 김창일 24만원(2차 주대 협찬).



해운대지구동창회 주최 제3회 요트 프라이빗 투어 1차 행사에 참가한 동문 및 가족들.



김해지역동창회 이사회가 김해동문회관에서 열렸다.

## 강서지구, 연대봉 ‘번개산행’...우정 다져

강서지구동창회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2일 오후 김택영(26회) 고문의 제안으로 가덕도 연대봉 ‘번개산행’을 가졌다. 참가 동문 8명은 연대봉에서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등 왕복 2시간 코스 산행을 즐겼다.

산행을 마치고 사하구 모깃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뒤풀이를 가졌다. 단

합과 우정을 다진 하루였다. 이날 경비는 김 고문이 찬조했다. 김종규(31회) 강서지구회장은 산행 출발지점에 와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귀가했다.

◇산행 참가자=김택영(26회) 김창범(32회) 이수관(38회) 김성준(44회) 박진수(45회) 윤호재(49회) 최우영(51회) 우재준(53회).



강서지구동창회는 추석맞이 가덕도 연대봉 산행을 다녀왔다.

## 김해지역동창회 이사회, 4/4분기 일정 조율 정기총회 12월 7일 개최

김해지역동창회(회장 박원근·32회)는 지난 9월 28일(수) 오후 김해동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올해 연말까지의 동창회 행사 진행에 관한 토의를 위한 모임이었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정기총회 12월 7일(수) 개최 △10월 월례회 10월 15일(토) 야유회로 전환(장소 추후 결정) △회비-연회비 10만 원, 모임 시 참가비 1만 원(즉시 시행) △밴드가입 조건 규정-경남중·고 졸업생 및 동등한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동문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존재 여부 및 운영 방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동문밴드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기수 표시가 없는 가입자는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회관에서 송대성(43회·김해시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 동문의 찬조로 마련한 음식으로 알찬 저녁식사가 마련됐다. 뒤풀이 맥주파티는 차의수(29회) 고문이 찬조했다.

◇참석자=최연삼(28회) 차의수 박광수 박희규(이상 29회) 황성철(31회) 박원근 양문성(이상 32회) 정희태(34회) 신동해(35회) 김용진 김규선(이상 36회) 김기덕(37회) 김춘강(40회) 고강인(54회).

‘소통의 창(窓)’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광고협찬을 바랍니다.



북정역 역세권 

2,523세대 단지 

미니신도시 급 프리미엄 

제니스의 명성과 가치를 잇는 또 한 번의 기회!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2차,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부산, 양산에서 가장 저렴한 착한 분양가의 최첨단 아파트”**



(주)고향의봄 회장 박 상 호 (경남중고 26회)

2,523세대 랜드마크 명품도시의 완성!

- 명품교통** 부울경 순환광역철도 및 양산도시철도 예정,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등
- 명품주거** 4-Bay 혁신평면, 가전 및 가구 빌트인시스템, 전용 커뮤니티시설
- 명품생활** 상북초, 양주중, 경남외고 등 학교와 천성산 체육공원·천성산 국민체육센터
- 명품단지** 1차 1,368세대에 이은 2차 1,155세대를 더한 랜드마크 대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2차

59㎡ (A) / 84㎡ (B)  
 총 1,155세대

문의 **055)385-8800**

시흥 코리아신택(주) 시흥 두산건설·(주)신태양건설

※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및 약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시도는 분양 완료된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1차와 당해 분양 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2차 이미지를 같이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 규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

# 비슷한 풀과 꽃, 다가가서 보면 이름 다르듯 제각각의 자태가...



7~8월

— 배움터 지킴이 정호균씨 촬영



산야의 모든 꽃과 풀들이 제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예전에는 “저 건 무슨 꽃이지?”하는 물음을 받으면 그저 “꽃”이라고 답하기 일쑤였다. 비슷한 종류라도 서로 다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야생화의 존재를 알고부터 꽃과 풀을 자세히 보게 된다. 시인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꽃이 되었다’고 했다. ‘다 같은 풀, 꽃’이 아니라 ‘이름 있는 풀, 꽃’으로 만나야 할 것 같다.



새포아풀

벼과, 한두해살이풀

들이나 집 근처의 빈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잔디와 닮아 잔디밭에 섞여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골프장의 골칫거리라고 한다. 새는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포아는 목초라는 의미의 희랍어라고 한다.  
(2021.7.1. 촬영-정문 계서판 오른쪽 신관 바닥)



거지덩굴

포도과 여러해살이 덩굴풀

아무데나 척척 걸쳐 올라간다고 붙여진 이름인 거지덩굴은 잎이 다섯 개가 한 쌍인 손꼴겹잎이며, 두 겹고 윤이 난다. 오렴매, 오룡초, 발롱갈이라고도 하며, 제주에서는 ‘까마귀삼동’이라 불렀다 한다. 뿌리는 오렴묘라고 하며, 한약재 진통제 및 이뇨제로 쓰인다. (2021.7.2. 촬영-체육관 앞 철망 아래)



바랭이

벼과, 한해살이풀

스님들의 바람에서 유래되었다는 바랭이는 마당 또는 바랭이라고도 한다. 흔한 잡초로 농부들이 싫어하는 잡초 가운데 하나다. 이삭 끝이 3~8개로 갈라지며, 옛날 아이들은 이삭으로 우산이나 조리를 만들며 놀기도 하였다. (2021.7.5. 촬영-정문 앞 계서판 뒤편 식당 조리실 연결 계단)



계요등

꼭두서니과, 여러해살이 덩굴식물

닭 오줌 냄새가 나는 덩굴이라는 계요등은 식물체 전체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 구렁내덩굴, 계각등이라고도 한다. 한방과 민간에서 거담제·거풍제·신장염·이질 등에 약용하며, 민간에서는 식물체를 독벌레에 물렸을 때 해독제로 쓴다. 종자는 야생동물들의 식량이 되곤 한다.  
(2021.7.8. 촬영-운동장 남쪽 펜스 그물망 아래)



주홍서나물

국화과, 한해살이풀

주홍색의 쇠서나물로 ‘쇠서’는 ‘소의 혀’를 가리킨다. 붉은서나물과 유사하나 붉은서나물은 꽃이 위를 향하고, 주홍서나물은 꽃이 고개를 숙인다. 담뱃불 같은 주홍빛 꽃이 피며, 잎과 줄기에서 향이 난다. 씨앗이 날아갈 무렵에 보면 하얀 솜털이 영긴 것처럼 보인다.  
(2021.7.9. 촬영-분리수거장 오른쪽 풀밭)



등골나물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잎 가운데에 골(등골)이 깊게 패인 등골 나물은 서양등골나물과 구분이 어렵다. 연한 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거나 데쳐서 무쳐 쌈으로 먹고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흔히 보이는 것은 서양등골나물로 생태교란식물이며, 어린순은 나물로 먹지만 위험하다고 되어 있다.  
(2021.7.20. 촬영-국산관 뒤편 숲속)



배포향

꿀풀과, 여러해살이풀

다른 잡초의 향을 물리치는 풀인 배초향은 방앗잎, 방아잎이라고도 한다.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차로 음용하며, 생 잎을 이용하여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거나 육류 요리 시에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한다.  
(2021.8.18. 촬영-분리수거장 뒤편 텃밭)



사위질빵

미나리아재비과, 낙엽활엽덩굴나무

그 이름에 사위가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이 나무의 줄기로 지계관을 만들었다는 강모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사위질빵은 질빵풀이라고도 하며, 북한 이름 사위질방이라고 한다. 뿌리는 백근초(白根草)라 하여 예전부터 요통과 중풍에 효험이 있다고 되어 있다.  
(2021.8.18. 촬영-국산관 왼쪽 언덕)



수까차개

벽오동과, 한해살이풀

열매 속에 참깨같은 씨가 많이 들어 있고, 야생으로 자라는 까치개 가운데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 수까차개이다. 8~9월에 노란 꽃이 피며, 인근의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2021.8.24. 촬영-교문 앞 오른쪽 언덕)



쥐꼬리망초

쥐꼬리망초과, 한해살이풀

꽃차례가 쥐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이름 붙여진 쥐꼬리망초는 들이나 길가, 신기슭 등에서 흔히 자란다. 7~9월에 분홍빛을 띤 보라빛 꽃이 피는데, 꽃의 크기가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2021.8.24. 촬영-늘솔길 손바닥 연못 옆)



으아리

미나리아재비과, 낙엽활엽덩굴나무

이름의 어원은 열매가 응어리진 팔랑개비처럼 생겼다고 ‘응아리’에서 ‘으아리’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얼핏보면 사위질빵과 비슷하게 보이나, 잎 가장자리에 톱니나 결각이 없고, 꽃 모양이 조금 다르다. 6~8월에 흰색의 꽃이 피며,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인다.  
(2021.8.30. 촬영-체육관 뒤쪽 옹벽 위)



무릇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옛말 물웃, 물가의 촉촉한 땅에서 볼 수 있다는 무릇은 잎이 뿌리에서 불과 가을 두 차례 나온다. 알뿌리를 데쳐서 식용 가능하고,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 알뿌리는 동굴레·참죽과 함께 고아서 간식으로 먹었다고 한다.  
(2021.8.30. 촬영-과학관 인구 왼쪽 풀밭)

# ‘경영 노하우’ 배운 기업 방문 “값진 기회”

## 덕경회, 회원사 디오·제이텍 찾아...“만족도 높아”

덕경회 제3차 정기모임이 회원기업 방문 형식으로 지난 8월 29일(월) 오후에 열렸다. 이날 방문 기업은 김진철(25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의 (주)디오(Dio)와 덕경회 회장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의 (주)제이텍(JEITEK)이다. 2곳 모두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번 기업방문은 지난 5월 중순 CEO급 이상의 상공인만으로 인적 구성을 하며 재출범을 한 덕경회의 첫 기획 행사이다. 이날 행사가 평일 오후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견학 기업은 임플란트 생산과 판매 기업 ‘디오’였다. 디오 회의실에서 박 덕경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 회장의 이력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김 디오 회장의 기업 및 인생 역정 소개, 사내 둘러보기,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 안내자로 디오 내 동문 사원 3명이 소개됐다. 장민훈(39회) 이승택(47회) 신동훈(61회) 동문이다.

디오는 현재 종업원 1,200명, 연매출 1,500억~2,0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60개국에 수출하며 해외법인 15개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기업은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 젊은 날 기계류 사업을 하다 미래성장을 예측해 헬스케어로 전업했다. 과감한 변신도 괜찮다”고 말하고 재무와 현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



덕경회가 회원기업 방문행사를 가졌다. 김진철(25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의 (주)디오(Dio)(사진 위), 박종찬(25회) 고문의 (주)제이텍(JEITEK)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다. 김 회장은 리더의 열정과 정신력을 강조하고 이어 비전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도 “일과 사업은 마라톤이다. 무작정 달려 가면 안 된다. 오후 4~5시 퇴근해 전원 생활하며 무한 휴식을 한다. 8시간 잠잔다”면서 CEO는 일과 휴식을 적절히 안

배할 것을 권유했다.

김 회장은 “사업상 대립할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라. 대립 상대는 피하는 게 좋다”면서 좌우명이 ‘홍익인간’이라고 말했다.

임플란트 생산의 최첨단 시설장비와 공정을 포함한 사내 둘러보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김 회장은 전공을 묻는 질문에 “인문학(지리학) 출신으로 자유분방한 사고이다. 입사 면접 시 전공을 묻기보다 지원자의 눈빛을 본다”고 말했다. 신기술 개발과 관련, 김 회장은 “5년 뒤, 10년 뒤 내놓을 기술을 지금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5년 내 인플란트 로봇시술이 상용화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 회장은 향후 도전해볼 만한 업종으로는 항공, 신약 분야라고 진단하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경영과 관련하여 김 회장은 “조직 내부에 의논할 든든한 인물을 두라. CEO는 잡다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일머리 트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김 회장의 아이템의 중요성과 진로 변경의 결단, 경영 노하우, 삶의 자세 등에 대해 뜻깊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디오 견학을 마친 참가자들은 걸어서 5분 거리의 제이텍으로 갔다. 제이텍의 공장은 밀양에 있으며, 센텀시티에는 기획, 영업 파트 부서 사무실을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제이텍을 1988년도에 창업, 선박 인테리어 업계에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박에 치중하여 선박 인테리어업이 위축되고 있어 새로운 아이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기업 소개 2편의 동영상 감상에 이어 박 회장의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기사 17면에 넘김>

# 용건회, 정상 되찾아가기 ‘활기’

## 8월 정기모임, 불황 탈출 방안 찾기 의견 교환

경남중고 건설인들의 모임인 용건회 정기모임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면 아리한정식에서 열렸다. 지난 5월 말 정기모임에 이어 코로나19로 휴면 상태가 됐던 모임이 정상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참석률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이날 모임의 초점 역시 ‘불황 탈출 방안 찾기’였다.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건설경기 진단에서 “건설수주가 작년 대비 많이 상승됐다고 발표는 하나 현장의 체감경기는 떨어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가 63%로 낮다. 기업 70%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기지수가 높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다. 계약은 돼 있어도 수금, 대금회수 문제가 있다. 자금 확

보가 힘들다”고 말하고 “내년 경기는 전망이 밝다.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면 수월할 것 같다. 대금회수와 투자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조언했다.

류종우(18회·전 부경대 교수) 고문은 격려사에서 자신의 70여회에 이르는 100대 명산 도전기를 이야기하고, “용건회 회원들은 아무쪼록 독한 마음을 먹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등산을 권유했다.

이 자리서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용건회에서 동창회관을 잘 돌봐달라.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고 내년 사업 잘 되길 바란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날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 회장 겸 덕경회 사무국장이 참석, 덕경회 재출범의 경위를 설명하고 용건회와의 동반 발전을 기원했다.

용건회는 이날 회원 밴드에 회원정



용건회 정기모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보를 상세히 기술하여 상호교류가 용이하도록 했다. 10월 정기모임은 등산 혹은 트레킹을 할 예정이다.

신입회원으로 진상영(45회) 동문이 소개됐다. 진 동문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미존테크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찬조=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 고문 10만원, 이종휘 남부산지구 회장 20만원, 동래·금정지구동창회 정용운(이상 32회) 회장 20만원, 박인석(39

회·알파신경외과원장) 동문 10만원.

◇참석자=류종우(18회) 오경석(20회) 이규봉(23회) 이영학(26회) 현응열(29회) 정순길(30회) 류명석(31회) 박성철 이종휘 이동영 정현상 장기호(이상 32회) 최웅남(33회) 박철웅(34회) 김경곤(38회) 김종엽 서은식 윤원욱(이상 39회) 김신욱 김인수 전삼록 한창희(이상 41회) 강인호 장일천(이상 42회) 진상영(45회) 이충현(49회) 구대서(51회) 전명재(67회).



# 용마코러스 제6회 정기연주회, 이태석 신부 기린다

## ‘탄생 60주년 기념음악회’로 헌정

**1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공연**  
 용마코러스가 제6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야심찬 기획을 시도했다. 오는 12월 13일(화)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고(故) 이태석(경남중고 35회 동문) 신부 탄생 60주년 기념음악회로 헌정한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 신부의 헌신적 삶은 인류애의 표상이다. 인류의 가슴을 촉촉이 젖게 한 ‘섬김’ ‘기쁨’ ‘나눔’ 등이 신부의 참사랑의 향기가 이번 연주회에서 오롯이 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3개의 각 무대별로 이 신부를 추모하는 가곡과 가요 등의 무대

로 꾸린다. 첫 무대 ‘평화의 노래’는 이 신부 자작곡, ‘슈크린 바바(하느님 감사합니다)’ ‘묵상’ ‘I Give You Peace’ 연주와 특별히 지휘자 조성빈(47회) 동문이 작사한 ‘내가 그들의 손을 잡으리라’(권태우 작곡)를 헌정곡으로 부른다.

두 번째 무대 ‘사랑의 노래’는 가요, ‘영영’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사랑’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올린다.

세 번째 무대 ‘그리움의 노래’는 가곡 ‘못잊어’, 외국곡 ‘Bridge Over Troubled Water’, 가곡 ‘동무생각’을 선사한다.

김형수(31회) 용마코러스 단장은 “지구촌이 전쟁과 이상기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태석 신부가 추구했

던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의 헌신이 그리워지는 때”라며 이번 연주회에 많은 동문의 성원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마코러스 단원 명단=지휘자 조성빈(47회) △반주자 박소미 △테너1-김형수(단장) 최상규(이상 31회) 안승진(39회) 안성호(40회) 최현(44회) 노재훈(50회) △테너2-김원철(38회) 박근태(39회) 안병규 문형준 탁정환 윤상훈(이상 44회) 백광선(50회) 조용수(52회) 장지훈(55회) 김현운(58회) △베이스1-정용식(31회) 손수범 전상건(이상 35회) 심재민(38회) 노성수 백기현(이상 39회) 김동원(41회) 신봉준(42회) 박형규(43



용마코러스 제6회 정기연주회 팸플릿 표지.

회) △베이스2-노덕현(19회) 고영호(31회) 김병기(39회) 김항(44회) 김백권(46회) 김석훈(50회) 이시원(51회) 이찬희(54회).



경미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정기모임을 가졌다.

## 경미회, 가족과 정겨운 모임 가져

### ‘요트 투어’ 풍랑으로 무산되자 ‘가족만찬’ 행사

경미회(회장 박동식·42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정기모임을 지난 9월 2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처음으로 가졌다. 이날 경미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가족과 함께하는 프라이빗 요트 투어’가 풍랑주의보로 무산되자 불가피하게 치른 ‘플랜B’ 행사였다. 이날 정기모임은 가족들이 함께했기에 더 여유롭고 정감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요트 투어 취소로 인해 행사에 참석 못한 회원 및 가족도 있었지만,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53명이 참석, 집행부는 감동을 먹었다고 한다. 좌석이 부족해 일부(임길환·54회) 가족은 별도의 방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개인부담 없

이 회식이 제공되었고, 참석 회원 모두에게는 5만원 문화상품권이 전해졌다. 또 각종 찬조 상품권 등이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회식 후 이가한우 옥상에서 뒤풀이 맥주파티가 열렸다.

이번 행사 협력분과는 친목교류분과(위원장 신정일·46회)이다. 경미회는 오는 11월 15일(화) 제3회 경미회 골프대회를 갖는다.

◇찬조 내역=박동식 회장-백화점 상품권 5만원×2장+젠즈베이커리 롤케익 7세트, 문지성 부회장-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정용중(이상 42회) 부회장-이가한우 상품권 5만원×2장, 김상수(45회) 사회공헌분과 위원장-10만원, 이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5매 사용.

## 경미회 당구대회 벌써 8회째 “고고상”

### 친목교류분과 또 우승...김민수(52회) 동문 기량 출중

제8회 경미회 당구대회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충동창회관 2층 KN당구장에서 열렸다. 당구장은 7월말부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날 대회는 차질 없이 치러졌다.

코로나 재유행과 휴가철인 관계로 참석인원이 다소 줄었지만, 각 분과를 대표한 선수들은 치열한 승부로 짜릿한 손맛을 즐겼다. 회관 내 식당 우미옥 역시 폐업한 터라 감기환(47회) 사무국장님이 준비한 김밥으로 요기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했다.

박동식(42회) 회장의 ‘화합과 즐거움 추구’라는 짧고 임팩트한 개회사에 이어 예선전이 시작됐다. 5개 분과 각 팀원의 점수를 합산, 상위 4개 분과 1, 2위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문화체육분과가 예선 탈락했다.

결승전 진출 명단 : \*A조=최영준(41회·사회공헌) 최원석(46회·대외협력) 김지운(52회·미래발전) 김민수(52회·친목교류) \*B조=배병훈(40회·대외협력) 전삼록(41회·사회공헌) 고지현(54회·미래발전) 박기홍(55회·친목교류).

이날 18개를 몰아친 김민수 동문의 괴력에 힘입어 친목교류분과가 7회 대회에 이어 또 우승(상금 20만원)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대외협력분과(상금 10만원), 3위는 사회공헌분과(상금 5만원)이다.

대회를 마치고 황귀웅(45회) 동문이 운영하는 인근의 호디에 치킨집에서 뒤풀이행사를 가졌다. 이날 뒤풀이 행사 비용 전액(35만원)을 박 회장이 찬조했다.



경미회가 제8회 당구대회를 열었다.

### <기사 16면에서 받음>

박 회장은 “CEO는 고독하다. 깊이 의논할 인물이 있어야 한다. 덕경회를 동문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덕경회는 이날 모임 전체를 아우르는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견학행사를 마치고 인근의 삼선식당에

서 뒤풀이 시간을 즐겼다.

덕경회는 오는 10월 24일(월) 제4차 정기모임 및 방문행사를 유재진(22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의 재송동 소재(주소) 자동차에서 갖기로 했다.

◇참석자=박종찬(25회) 정순길(30회) 백영태 이종휘(이상 32회) 이동근(33회) 이창(36회) 허부남(37회) 구동주(38

회) 백기현(39회) 김춘강(40회) 윤종진(41회) 강병규 박형규(이상 43회) 탁정환(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조태성 최재근(이상 45회) 김백권(46회) 정유석(51회) 황종민(53회)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한편 덕경회 집행부는 지난 8월 18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부산시

체육회 회장인 장인화(35회) 동문의 동일철강 본사(사상구 소재)를 방문, 환답을 나누었다. 덕경회 박 회장, 이종휘(32회) 사무국장, 허부남(37회) 대내·외협력단장, 정 신(47회) 재무차장 등 4명이 참가했다. 장 동문은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활동과 기업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을 들려주었다.

# 권역 대표 대회로 성장 가능성 보였다

## 제2회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성료 우승 양산시리틀야구단, 준우승 사상구리틀야구단 차지



제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이하 리틀야구대회)가 대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다졌다. 지난 8월 18~21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에서 열린 제2회 리틀야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제1회 리틀야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는 출전팀이 2개가 늘어 18개팀이 참가했고, 안정적인 경기 진행으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지역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산지역, 나아가 동남권역의 대표적 리틀야구대회로 자리매김할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 역시 지난해와 같이 경남중고 총동창회 주최,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야회 주관으로 열렸다. '경남중고'라는 이름을 걸고, 경남중고 출신 동문들이 대회를 주관함으로써 야구 명문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 5월 30일 경남고 야구부의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은 이번 리틀야구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양산시리틀야구단(감독 권재광·43회)이 쟁취했다. 지난 8

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양산시리틀야구단은 투수 권하숨 선수의 역투에 힘입어 부산 사상구리틀야구단(감독 김정훈·47회)을 4 대 2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양산시리틀야구단의 권 감독은 "창단 13년 된 우리 팀은 전국대회 20회 우승의 톱클래스이다. 선수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시상식에서 우승 양산시리틀야구단은 우승기와 상장·트로피를, 준우승 사상구리틀야구단은 상장과 트로피를 각각 수여받았다. 최우수 선수상은 양산시리틀야구단의 투수 권하숨 선수가, 우수선수상은 사상구리틀야구단의 임병채 선수가 거머쥐었다. 타격상은 1위 강시우(울산남구리틀야구단), 2위 전성민(사상구리틀야구단), 3위 임현수(부산진구리틀야구단)



제2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울경 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양산시리틀야구단.

선수가 차지했다.

이날 폐막식에서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성공적 대회를 이끈 모든 선수단과 진행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제3회 대회는 준비를 더욱 잘해 더 훌륭한 대회를 만들겠다. 선수 여러분들은 많이 먹고 많이 크고 열심히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신(47회)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가 될 이 리틀야구대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야구대회라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부남(37회) 동문이 폐막식에 참가, 시상을 도왔다.

한편 8월 18일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대회가 성

공적으로 개최돼 전국적으로 외연을 넓혀 경남중고의 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되 학업도 놓지 않는 등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축사에서 "이 대회 출신 선수들이 중·고교로 진학하고 프로야구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경야회 회장과 정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이 자리서 축사를 통해 야구꿈나무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이 개막식 시구를, 박 고문이 시타를 했다.

개막식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55회) 동문이 커피차를 지원, 참가 선수들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개막식 참석 동문(직책 생략)=박종찬(25회) 김대욱 현영열 김종명(이상 29회) 김종규(31회) 허부남(37회) 조용철(38회) 윤원욱(39회) 전광열(44회) 정신(47회) 김동주(51회) 송승준(53회) 김상욱(55회)

◇후원 내역(직책 생략)=유재진(22회) 100만원, 박종찬(25회) 100만원, 김대욱(29회) 200만원, 이종휘(32회) 50만원, 허부남 100만원, 김종휘(이상 37회) 100만원, 조용철(38회) 100만원, 정순환(39회) 50만원, 안병규 100만원, 전광열(이상 44회) 5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김동현(50회) 10만원, 김동주(51회) 100만원, 김현진 10만원, 서정수 200만원, 허근영 30만원, 한중현(이상 52회) 10만원, 송승준 50만원, 이상훈 50만원, 김상욱(이상 53회) 50만원, 심세준(56회) 50만원, 강서지구동창회 20만원, 51회 동기회 30만원, 55회 동기회 30만원, 경미회 30만원, K-청마회 20만원, 이대호(55회) 400인분 커피차 지원.



### 신영우 NC, 김범석 LG, 김정민 SSG, 박윤성 키움, 손민석 KT 경남고 야구부, 신인 드래프트 '대박'

동의대 윤준호 두산, 성균관대 이준호 NC 지명

경남고 야구부가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쳇말로 '대박'이 났다. 3학년생 5명이 지명됐다. 전국 최다이다. 게다가 졸업생 2명까지 보태져 함께 7명이 이번에 지명되었다. 제

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팀답게 드래프트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고의 야구명문임을 입증케 한 쾌거이다.

투수 신영우 NC, 포수 김범석 LG,

외야수 김정민 SSG, 투수 박윤성 키움, 유격수 손민석 KT로 정해졌다. 동의대 포수 윤준호는 두산, 성균관대 투수 이준호는 NC서 뛰게 되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1~3라운드 상위 지명에 한 학교에서 5명을 배출한

왼쪽부터 투수 신영우, 포수 김범석, 외야수 김정민, 투수 박윤성, 내야수 손민석.

기록은 놀라운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금사자기 우승에 이어 전광열(44회) 감독의 지도력이 또한번 인정받았다.

전 감독은 "이번에 지명된 선수들은 모두 미래에 한국 야구를 이끌 주역들"이라면서 "프로무대에서 소속 팀은 달라도 선의의 경쟁으로 모두 대승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 노브랜드배-경남고팀, 군산상고와 16강 대회전 “꺾끄러운 상대, 피할 수 없다면 격파를”

10월 15일 천안 북일고에서 격돌...예선 신승(辛勝), ‘쓴 약’ 되길

신세계 그룹 이마트 주최 ‘노브랜드 배 고교동창 야구대회’ 본선 16강전에 나선 ‘경남고등학교 OB덕형’(이하 경남고팀)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1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와 맞붙는다. 예선 두 경기에서 신승(辛勝)한 경남고팀은 본선(16강전)에서도 만만찮은 상대와 겨루게 되었다. “꺾끄러운 상대를 피할 수 없다면, 정면돌파로 격파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야구애호 동문들의 주문이다. 경남고팀은 예선전에서의 호된 시련(?)이 약(藥)이 되었는지 전의(戰意)가 불타고 있다.

경남고팀은 지난 9월 17일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예선 2차 경기에서 그야말로 ‘진пам승’을 거두었다. 한 동문은 “야구명문의 관록이 행운을 가져왔고, 돌풍에 맞설 힘을 주었다”고 관전평을 내렸다.

경남고팀은 이날 오전 1차전에서 개성고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뽑기에서 5대 4로 운 좋게 이겼다. 오후 2차전에서는 양정고를 8대 6으로 어렵게 겨우 물리쳤다. 이날 응원 온 동문들은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하루였다.

경상권A 예선에는 총 8개교가 참가했다. 경남고팀과 부산고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경남고팀의 두 경기를 압축해서 소개한다.



노브랜드배 예선을 통과한 경남고팀이 본선에서의 전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노브랜드배에 출전하는 경남고팀이 출정식을 가졌다.

▲1차전=출전 선수 전원 선수 출신 라인업인 개성고와의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다. 경남고팀은 1회초 2실점, 1회말 1점 만회, 4회말 상대 실책 틈타 1득점으로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부뽑기에서도 1~3번 타자 연속 팽하다 연속 동그라미 5개로 웃다.

▲2차전=양정고팀은 야구부는 없지만,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비선수 출신으로 사회인야구 특급투수 2명이 이끄는 복병(伏兵)이었다. 경남고팀은 1회초 1득점, 1회말 2실점, 2회초 연속안타로 5득

점(6 대 2로 순풍을 타는 듯했다), 3회말 3실점(6 대 5, 안타수 7:7...앗! 이 건 아난데), 4회초 1득점(7 대 5), 4회말 1실점(7 대 6...숨 막히는 접전), 5회초 1득점(8 대 6), 5회말 2사 주자 2, 3루 상황에서 볼카운트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삼진 아웃(총 안타수 11:9). 경기 시간제한(2시간)으로 경기 종료.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는 경남고팀 선수단과 응원단.

이날 경기를 지켜본 동문들은 경남고팀이 본선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선 투수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출전 선수 숫자 여유분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이종운(39회) 감독은 선수들에게 “수고 많았다. 스포츠는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게 이겼지만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좀 부족한 것은 준비 잘 해서 본선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경남고팀원과 응원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선수단과 응원단은 용호동이 가한우에서 이날의 승리를 자축하는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오늘의 수훈 선수’ 수상자로 김민기(49회) 김정현(50회) 동문이 선정되었다.

이 자리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격려금이 전해졌고,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 이동근(33회) 용마골프 회장, 김창일(36회) 동문이 찬조를 했다.

이에 앞서 경남고팀은 지난 8월 15일 오후 경남고 운동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번 대회에서 ‘야구명문 경남고’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경남고팀 단장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고문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 이종운(39회) 롯데 자이언츠 감독, 감독을 비롯, 선수단 및 고문단 등 다수가 참가했다.

이 자리서 김 단장은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 모교의 이름을 걸고 출전 하니 부상 없이 좋은 결과를 내자”며 선수단을 독려했다.

선수단 명단 발표에 이어 이 감독이 출사표를 내놓았다. 이 감독은 “동문 선 후배와 함께 출전해 기쁘다. 동문회에서 기대하는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승한다”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후라, 경고!’, 응원가1, 교가 제창, 기념촬영으로 이어졌다. 보수동 동화반점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김 단장이 뒤풀이 경비 일체를 찬조.

이날 출정식에 앞서 경남고팀은 부산고팀과 연습경기를 가졌다. 7대 3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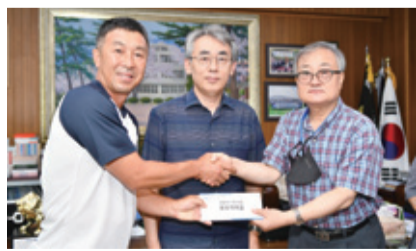
## 경남고 야구부, 국가대표 3명 배출 신영우, 김범석, 김정민 선수 영광

세계청소년야구 출전, 4위 성적  
경남고 야구부가 국가대표를 3명 배출했다. 투수 신영우, 포수 김범석, 외야수 김정민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지난 9월 9~1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제30회 세

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 출전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마산고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고윤성(55회) 동문이 이번 대회 한국팀 코치로 활약했다.

## 봉황대기 지원금 전달

총동창회는 지난 8월 18일 오후 경남고 교장실에서 야구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전광열(44회) 감독에게 선전을 당부하고 출전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과 김종명(29



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경남고 야구부는 봉황대기 16강전에서 덕수고에게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 ◇ 노브랜드배 고교동창 야구대회 찬조 내역(총 1,620만원+@) (9월 27일 현재)

경남중고 총동창회 130만원, 경야회 50만원,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200만원, 박상호(26회) 덕형리그 초대 회장 100만원, 김대욱 총동창회 회장 330만원+출정식 식대, 이문열(이상 29회) 덕형리그 고문 50만원,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 50만원+연태 고량주, 33회 동기회 야구단 20만원, 이윤조 덕형리그 회장 30만원, 김윤성 동기회 야구단 고문 30만원, 백수현 10만원, 최상진 30만원, 공진우 10만원, 박근보 10만원, 박상국 10만원, 백홍문 10만원, 송종현 10만원, 윤상현 10만원, 김병영(김앤정 해운대병원 원장) 300만원, 이동근(이상 33회) 용마골프회장 30만원, 김창일(36회) 20만원, 허부남(37회) 사하지구동창회장 50만원, 박정민(38회) 용마골프회 사무국장 응급치료키트,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30만원, 김병주(40회) 센텀신경외과 원장 의료 지원(주사 치료), 서상대(41회) 음료 지원, 전광열(44회) 경남고 야구부 감독 연습 지원, 정신(47회)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100만원, 김상욱(53회) 경남중 야구부 감독 연습 지원.

후원 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2887680 김현진



### 경남고 여름방학 토론 캠프 개최

경남고는 지난 8월 9~11일 1,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여름방학 토론 캠프를 개최했다(사진). 학생들은 학교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과 인간이 다시 친해지려면?'을 테마로 관련 도서를 읽은 후 가축의 대량 사육과 낙동강에 대

한 인격 부여를 주제로 디베이트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핵심 역량으로 다루는 정보 활용이나 비판적 수용 능력을 익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발견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 1학년, 메타버스 활용한 진로 교육

경남고 1학년 전 학생은 지난 9월 21일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주제를 활용하

여 미래 직업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상세계를 활용하여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여 상상함으로써 직업 세계에 대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계기의 시간이 되었다.

### 동문 선배 초청, 응원가 교육

경남고는 지난 9월 23일 국산관에서 동문 선배 초청 재학생 응원가 교육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날 재학생들은 선배로부터 경고인의 응원가를 전수받았고, 익힌 응원가를 북소리와 함께 열창하였다. 재학생들은 이를 통해 경남고에 대한 애교심을 함양하고, 졸업생과

재학생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응원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재학생들은 동문 선배로부터 배운 응원가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고인의 웅비와 열정을 되새기고, 경고인의 정신과 연대를 가슴에 함께 새겼다.



###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경남고 2학년 학생들은 지난 9월 20~23일 3박4일의 숙박형 체험활동인 수학여행(사진)을 다녀왔다. 2학년 학생들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과 문화를 보며 호연지기를 키우고 지식을 넓힘으로써 학업 등 일상의 지침을 회복하고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이번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학습 설계에 직접 참여한 학생 중심 활동이었다.

## 경남중, '2022년 존중 어울림 학교' 선정

경남중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올해 실시한 인성 캠페인 '2022 찾아가는 존중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전 학년이 일상 속 존중 사연을 응모,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다. 오는 10월 20일

학교강당에서 존중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간식차를 제공 받는다. 또 '2022 존중 어울림 학교'라고 새겨진 동판을 받아 교문 앞에 부착할 예정이다.

## 부산학생비엔날레에 3명 출품

2022부산학생비엔날레 '학생 작가 전'에 경남중 강성훈, 배지승(이상 3학년), 김준용(2학년) 군이 작품을 출품했다(지도교사 김보

현). 부산시 초·중·고 61개교 84개팀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경남중 학생들은 작품 제작 계획부터 실행, 전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참가 학생들은 생애 첫 전시라는 색다른 경험으로 작품 활동에 보다 더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경남중 학생 작품은 지난 9월 20~28일 서면 놀이마루에서 전시되었다.



2학년 김준용 <단군신화>



3학년 강선훈 <Eternal>



3학년 배지승 <아트버퍼링>

## 평화통일 배지 도안공모 정준엽(2학년) 군 1등

2022년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진행 중인 경남중은 2학기에다 평화·통일 배지 도안 공모,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평화나무 완성하기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1, 2, 3학년 학생 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통일 특독신문'을 총 4회 발간하였다.



9월에 실시한 '평화·통일 배지 도안 공모'에 2학년 정준엽 군이 1등의 영예를 얻었다. 작품(사진)은 비둘기 날개에 제주(돌하르방)와 백두산을 넣어 하나 된 나라에서 하이파이브 하는 남과 북의 모습처럼 평화의 마음으로 화합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꿈꾸자

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른 당선작들도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 도안들은 10월 경남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배지 만들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 경남중 용마축구리그 3년 만에 재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경남중 용마축구리그가 지난 8월 29일 3학년을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계획, 운영되는 용마축구리그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경남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 중의 하나인 용마축구리그는 각 반 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반 친구들은 자신의 반을 응원하면

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모든 참가 선수는 사전에 스포츠맨십 서약서에 서명한 후 경기에 임한다. 경기 심판도 사전교육과 심판법 숙지를 통해 리그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년 별 총 10일간 진행된다. 3학년 용마리그는 야구부 학생들의 활약으로 5반이 1등 하였다. 2학년은 10월, 1학년은 11월에 행사를 개최한다.

## 동기화·동호회 및 직능단체

### 16회, 졸업 60주년 1박2일 수학여행

올해 졸업 60주년을 맞은 경남중고 16회 동기회(회장 강종국)는 기념행사로 실내행사는 갖지 않고 '1박2일 수학여행'을 간다. 오는 10월 20~21일 거제, 남해 일대를 휘돌아 관광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계획이다.

강 회장은 "함께 1박2일 수학여행을 통해 60년 전 재학시절의 추억도 되살리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도 즐기자"며 힘든 코스가 거의 없으니 동기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연락처 : 강종국 010-8531-2827, 서고명 010-2550-2069.

#### 16회 = 고문·이사 연석회의

지난 9월 16일(금) 중앙동 명송식당에서 졸업 6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의논차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종국 박민소 서고명 손송방 송규정 옥무웅 이겸일 이맹립 이종철 정영일 홍정길

#### 일육산악회 = 9월 정기산행



일육산악회(회장 서태복)는 지난 9월 18일(일) 대연동 경성대 옆길~황령산~청소년수련원~금련산추어탕 오찬(식사제공:김무광)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강종국 권명석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부부 안국정 이겸일부부 이종철 정우광부부

#### 23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 서면 양지양곱창에서 2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올해 네번째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회장 인사 후 건배 제의하고 올해는 매달 월례회모임을 하자고 하였다. 채행운 동기는 자서전 제2집 '인간본색' 책을 소개하고 참석 친구들에게 1권씩 선물하였다.



참석자 : 권칠현 김기룡 김동욱 김상영 김상호 김주찬 김태홍 김현구 박무열 박수갑 박영창 박재호 송충송 신상희 안병화 안호창 오윤안 원인건 윤순현 이성규 이용원 정동일 정연철 조운종 조진호 채행운 최대일 한영철 홍덕표

#### 23회 산우회 = 지리산 둘레길 완주



지난해 6월 6일 첫 발걸음으로 시작한 지리산 둘레길 전 코스 트레킹이 13개월 만인 지난 7월 3일 종료되었다.

참가자 : 김영기 이상운 김덕규 김현규 안호창 조운

#### <26회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10월 15일=야구 경부전

/시그니얼 호텔 축하연

\*10월 16일=크루즈 /해변열차길 걷기

#### <36회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12월 17일=롯데호텔 축하연

#### <46회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10월 29일=코모도호텔 축하연

#### <56회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12월 3일=영도 목장원 축하연

중 최인식 박재완 박수갑 오윤안 이용원 이승국 문주열 윤순형 이순 송충송(산대장) 외 여러 명.

#### 23회 당구회 = 3분기 친선대회



23회 당구회는 지난 9월 28일 부산 동구 범일동 스카이당구클럽에서 3분기 친선대회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송충송 동기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 24회 동기회 = 2022년 세번째 모임 개최

지난 8월 24일(수) 오후 6시 삼송초밥에서 24명의 동기가 모여 모임을 가졌다. 최우림 동기회장의 인사에 이어, 임민호 직전 회장의 인사 및 치루지 못한 50주년 행사를 10월 동기회 행사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동기의 호응을 받았다.

<기사 22면에 넘김>

## 경남고, 동문 선배 초청 진로 특강

### 각계 활동 동문 14명 강사로 참여

경남고는 지난 9월 28일 오후 교내에서 '동문 선배 초청 진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했다.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전문 분야별 특강이었다. 정보통신, 인테리어, 공인회계, 보건 및 복지, 언론, 국방과학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14명의 동문이 강사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신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에 따라 참석 학생의 수가 차이났다. 동문 강사들은 이날 일선에서 겪는 생생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 실무내용과 준비과정

등을 현장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 동문 강사들의 조언은 막연한 꿈과 진로 선택에 멘토로서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 강사와 강의분야는 표물과 같다.

#### 2022년 진로지도 특강 강사 명단

연번	성명	근무처	강의분야
1	김재철(30회)	전)부산MBC 보도국 본부장 /전)부산교통방송본부장	방송-엔터테인먼트
2	류장근(33회)	동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보건행정
3	이정영(36회)	화신사이버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기업경영
4	이 창(36회)	(주)MDIS 대표	IT-정보통신
5	정윤희(36회)	부산교통방송 방송심의실장	방송-엔터테인먼트
6	김태호(38회)	INCOTECH대표	친환경사업
7	한수열(40회)	모두투어 대표	여행
8	이양길(41회)	(주)이노아이디 대표이사	인테리어
9	전삼록(41회)	(주)그린D 대표이사	인테리어
10	김성기(45회)	김성기 세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
11	고달우(47회)	부산일보	기자
12	최진영(49회)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업회계
13	김현진(52회)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과학
14	정상중(52회)	동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컴퓨터 정보통신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1면에서 받음>



10월 행사시에 역할을 할 동기 소개(이상룡, 오성환, 김도현, 유홍석) 및 인사가 있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구자용 김경남 김도현 김성권 김성득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박외생 배재일 안명수 안상수 오성환 이상룡 임민호 장현동 정영환 주점권 최승국 최우림 최원주 태창업

#### 24회 동기회 = 10월 행사 대비 사전 회의 개최



지난 9월 21일(수) 오후 6시 오는 10월 24일(월) 개최 예정인 동기회 모임 장소인 '콩밭에'에서 관계자 사전회의를 하였다. 모임 명칭을 '50주년 청춘 페스티벌'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서 각자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김도현 김인구 오성환 유홍석 이상룡 임민호 최동우 최우림

#### 24회 산우애 = 9월 정기산행(제241차)



지난 9월 3일(토) 못골역 4번출구 ~ 남구청 ~ 바람고개 ~ 금련산수련원 ~ 중앙교회 ~ 양산박 코스로 9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안형수 산행대장의 사전답사로 확정된 안형수루트 트래킹이었다. 곽두희 산우애 회장의 인사와 추후 산행계획 설명, 임민호 동기회 직전회장의 10월 동기회 행사(졸업50주년 기념 행사 미실시에 대한 아쉬움 해소 차원의 행사) 계획 설명이 있었다.

참석자 : 곽두희 김인구 박해성 배재일 백산흠 안형수 유홍석 이현우 임민호 장수현 조재진 태창업

#### 24회 이사빌(당구동호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 14일(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8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 결과 : 우승 황성훈, 준우승 조영태.



참석자 : 곽두희 김경남 김성권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임덕철 장현동 정기춘 조영태 태창업 황성훈

#### 24회 후라회(야구 동호회) = 9월 모임 개최



지난 9월 7일(수) 오후 6시 자갈치 성문식당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2022년 총동창회 기별야구대회는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곽두희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태창업 황성동

#### 24회 남해수(남구+해운대구+수영구 지역모임) = 9월 모임



지난 9월 23일(금) 오후 6시 이라이라 광안점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지리산 종주 및 횡단 등반에 성공한 동기들(백산흠, 안형수, 유홍석, 이현우, 최원주 / 곽두희, 김성권)을 초대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기회 임민호 고문(직전 회장)이 10월 24일 갖게 되는 '50주년 청춘 페스티벌' 안내 및 참석을 독려했다.

참석자 : 김성권 김인구 배재일 백산흠 손세영 안형수 여철우 이수 이현우 임민호 장수현 장현동 정영환 차동렬 최승국 최원주 하재갑 황규선

####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9월 11일(일) 천마산(서구) 둘레길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노태호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

#### 25회 당구회 = 정기모임



지난 9월 16일(금) 서면 나이스당구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모임 후 대야성갈비(서면)에서 즐거운 저녁 뒤풀이를 가졌다.

참석자 : 김규진 김옥권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장세훈 전상태 최차환 한봉재

#### 25회 = 9월 월례회 모임



지난 9월 20일(화) 서면 부광힛집에서 9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월례회는 여성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경과보고, 송정규 회장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이번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오랜만에 갖는 모임이라 동기생들은 반가운 만남에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1차에 아쉬운 동기생들은 2차로 건너편 생맥주집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못다한 우정을 나누었다.

#### 28기우회 = 오랜만의 경부교류전



28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서초 바둑싸롱'에서 재경28동기회 기우회(회장 유태준)와 몇 년 만인지도 모를 경부교류전을 가지고 우애를 다졌다. 오전 9시 15분 SRT편으로 상경한 7명의 본부동기회 기사들과 서울지역을 제외한 인천 등지에서 합류한 4명의 기사들로서 본부팀을 구성했다. 이에 맞서 재경동기회서 11명의 기사가 나왔다. 오후 2시부터 반상(盤上) 열전을 벌였다. <기사 23면에 넘김>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2면에서 받음>

1, 2차전 두 차례에 걸쳐 11 대 11로 교환 경기를 펼친 결과, 본부팀이 12승 10패로 신승했다. 대국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소재 '기와집'에서 재경28회 동기회(회장 최봉락)가 베푸는 푸짐한 만찬을 즐기며 수담(手談)으로 미처 못한 정담을 나누고 다음을 기약했다. 28기우회는 오는 11월 제1회 28본부동기회장배 바둑시합을 계획하고 있다.

△본부팀 : 기우회장 김정유, 고문 이관선, 총무 이승준, 김경준, 소유남, 안상원, 이만수, 김용섭(청주), 이승열(인천), 이재성(이관선 제자), 주광식(재경)

△재경팀 : 기우회장 유태준, 총무 전재만, 김보상, 김태영, 송재봉, 옥준원, 이재만, 이호선, 전상원, 허남진, 재경동기회 총무 차정인, 재경동기회장 최봉락(참관)

#### 30회 = 정기총회



지난 8월 20일(토) 윤인태 회장 임기 2년 차인 2022년 본부동기회 정기총회를 남천동 뉴부산횃집에서 개최했다. 비 오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구모임 회원, 지역모임 동기들을 비롯한 40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경고 30회 깃발 아래 이원용 총무 사회로 윤인태 동기회장 인사, 결산보고, 동기근황 소개와 사랑의 기금 및 회비 독려, 향후 행사일정에 대한 공지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10월 9~10일 경부합동소풍 등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 31회 = 동부지회 모임



동부지회 정기모임을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인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반에 해운대 '배비장 보쌈'에서 가졌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5명의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동부지회만의 끈끈한 동기애를 보여주었다. 박경수 신임 회장 금일봉 찬조.

#### 31회 = 서부지회 모임

서부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인 지난 8월 26일 창선동 동기 식당 평양갈비에서 21명의 동기가 모



여 시간가는 줄 모르게 우정을 쌓았다. 10월 동기 행사에 많이 참석하도록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박경수 신임 회장 금일봉 찬조.

#### 35회 울산동기회 = 9월 모임



지난 9월 23일(금) 오후 6시 태화강민물장어(수암로)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울산 친구들의 1박2일 환갑여행은 2023년에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회의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자 : 강창호 김인수 남권효 박희찬 손경호 유철인 이효성 Guest-부산 백현성

#### 36회 울산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25일(월) 울산 남구 신정동 마당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9명이 모처럼 회포를 풀었다. 제갈재환 동기가 아들 결혼 축하 답례로 1차 식사비 전액을 쾌척했다. 2차 뒤풀이 '좋은사람들'에서의 비용은 박성만 동기가 찬조했다.

참석자: 강태원 김진한 박성만 박철중 심왕보 이원석 정영효 정윤희 제갈재환

#### 39회 = 한라산 등반 산행



지난 9월 24일(토) 수학여행 가는 설레이는 기분으로 한라산 등반 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병기 김윤희 박근태 백기현 안영준 이상학 정순환 조임환

#### 41회 산악회 = 가지산 정기산행



지난 9월 25일(일) 운문령~초소~쌀바위 대피소~가지산 정상~운문령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봉준 김신욱(사모님 김현정) 류지섭 안광근 최호열(사모님 손미정)

#### 42회 = 천성산 계곡 트레킹



지난 8월 6일(토) 우리 친구42들은 배낭을 두서너개씩 짊어지고 천성산을 향했다. 오를 때는 두 번 다시 안 오겠다고 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명 '알탕'을 하고 폭포에 몸을 맡겨 더위를 식히니 낙원이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준비해온 삼겹살과 오리, 총무김밥, 라면 등을 먹으며 한 잔 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내년에도 오자는 말과 함께^^

#### 42회 = 서부산 모임 개최



지난 7월 22일(금) 괴정동 소재 돼지수육 전문점인 하동집에서 서부산 모임을 개최하였다. 예상 밖으로 많은 동기들이 참석했다.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참석자 총 16명은 한 명의 이탈자 없이 1, 2차까지 합류하여 우정을 나누었다. 이에 탄력 받아 조만간 동부산 모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동기회에 박준선(3-10) 친구가 처음 참석했다.

<기사 24면에 넘김>

###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3면에서 받음>

#### 42회 베이스캠프(와인모임) = 2022년 2차 모임 개최



지난 8월 26일(금) 서면 일식 퓨전식당인 '짜퐁'에서 문지성 교수 동기의 와인강의와 더불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경조사 동기를 초청하여 위로 및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연(年) 4회 모임을 연 6회 하기로 결의하였다.

#### 45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 19일(금) 하단 만포장횃집(이승현 39회 동문 운영)에서 18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8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동규 김상수 김성준 신태호 안형오 이광석 이동희 이성근 이상현 이좌철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 56회 동기회 = 55회와 야구연습



#### 100대 명품 산행 해단식낙동정맥 출정식 용마산악회, 10월 9일 개최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가 2022년 제2차 정기산행 겸 '100대 명품 산행' 해단식과 낙동정맥 산행 출정식을 오는 10월 9일 개최한다. 이날 구봉산(404m)·엄광산(505m)을 등반하고 부산진역 건너편 협성뷔페에서 뜻깊은 행사를 갖는다.

이번 산행은 해단식과 출정식 관계로 근교산을 택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남고 덕형관 앞에서 집결(우천불구)하여 두 산을 타고, 동봉·수정산가족체육공원을 거쳐 협성뷔페로 향한다. 오후 2시경 산행을 마치고 협성뷔페에서 식사하며 행사를 진행한다.

용마산악회는 2008년 6월~2010년 6월 백두대간을 완주한데 이어 2010년 11월~2022년 7월 100대 명품 산행 완주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낙동정맥 산행 완주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대호(55회) 동문 등번호 '10번' 영구결번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55회) 동문의 등번호 '10번'이 고(故) 최동원(31회) 동문에 이어 롯데의 두 번째 영구결번이 되었다.

이 동문의 등번호 10번 번호판은 사직구장 메인 전광판 하단 오른 쪽에 배치된다. 최 동문의 등번호 11번은 메인 전광판 하단 왼쪽에 있다. 두 영구결번 번호판이 전광판 양쪽에 대칭적으로 설치되면, 경남중고인의 자부심 고취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사직구장에서 이 동문 은퇴 행사를 10월 8일 성대하게 갖는다.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갖는 이날 행사 제목을 'RE:DAE-HO'로 달았다.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은퇴식과 영구결번식이 진행된다.



올해 결성된 56회 야구팀은 지난 9월 17일(토) 경남고 운동장에서 55회 선배팀과 포지션별 훈련도 하고 연습게임도 하며 이번 기별야구대회를 준비했다. 55회 야구단 주장 이향림 선배의 지인이 수비 훈련을 지도해 주었다. 훈련 후 선후배 간 뒤풀이 자리를 남포동 '3세판'에서 진행했다. 오민일 56회 부회장이 운영하는 곳이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2차는 맥주집에서 가졌다. 1, 2차 모두 55회 선배가 찬조. 전민기 선배가 2차 후 남은 인원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참석자 : 김정현 김현중 박기홍 박상인 박정민 이육한 이해민 이향림 임인철 전민기 정승우 정승윤 최유성 허준 황보영(이상 55회) 강지훈 김경후 김기훈 김병욱 김선철 김영준 김형근 오민일 오신욱 이동훈 이승민 이준희 임동섭 장재환(이상 56회)

####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 9월 모임



지난 9월 21일(수) 오후 6시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유종아(40회) 정찬홍(43회) 김상조(52회)

#### 기독교동문회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독교동문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토) 임원 12명이 하계 단합대회 겸 20년사 발간 중간점검을 위하여 일광 일원에서 식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함

#### 경남고 소재 동대신3동 100년 역사 엮어 이영학(26회) 동문, '우리 동네...'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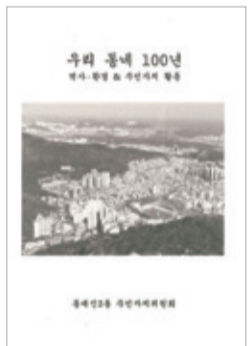
'동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학(26회·사진)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이 '우리 동네 100년-역사·환경&주민자치 활동'(사진 아래)을 펴냈다. 동대신3동은 19세기까지는 한가한 변두리였다가 20세기 들어 일제가 탐냈던 '명당 터'로 개발, 발전된 곳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근대화 100년의 흔적과 애환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격동의 마을의 생활과 문화를 건축사학 관점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모교 경남고가 소재한 동대신3동은 일제가 1926년 '동대신정 3정목(東大新町 三町牧)'이란 지명으로 정립된 지역이다. 곧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동대신3동의 100년 역사와 환경 속에 개교 80년의 경남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이 그 빛나는 역사와 전통이 쌓이고 엮어진 터전임을 주목하게 된다. 조

만간 발간될 모교 80년사와 함께 펼쳐본다면 더 유익한 자료집이 될 것 같다. 학창시절 동대신3동을 매일 밟고 다녔던 기억을 가진 경남중고인으로서 흥미를 끄는 기록물이라 할 수 있겠다.



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기독교동문회 회장단인 31회에서 9월 7일(수) 핵심멤버 목사·장로 등 6인이 모여 기독교동문회에서의 회장단 수행을 위한 의견교환과 헌신의 결단을 다짐하였다.

#### 경불회, 오랜만에 법회 가져

경남중고 동문 불자회(경불회·회장 정영천)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법회를 가지지 못하다 지난 9월 17일(토) 오후 충동창회관에서 법회를 가졌다. 법문은 요즘 '반야심경' 책 2권을 내어 유명해진 관정스님(통도사 금수암)이 맡았다.



### 요즘 어떻게?

#### <13회>

△장세화 = 딸 유진양 10월 3일(월) 오후 2시 더 발렌티청담(서울)에서 결혼.

#### <20회>

△최상인 = 부인상. 9월 3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발인.

#### <23회>

△김현구 = 모친상. 문상은 마음으로만 받고 9월 6일 가족장으로 장례식 치른다. △신상철 = 모친상. 9월 13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인. △이승국 = 차남 동훈군 9월 17일(토) 부전동 W스퀘어 3층 더스카이홀에서 결혼. △이인근 = 모친상. 9월 11일 동의의료원 특2호실에서 발인.

#### <24회>

△박군철 = 모친상. 8월 26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서 발인. △배재일 = 장남 성은군 10월 22일(토) 오전 11시 센텀 프리미어호텔 2층 프리미어홀에서 결혼. △이병일 = 막내딸 성은양 8월 13일(토) 오후 3시 서울 라비두스 단독홀에서 결혼. △정승화 = 모친상. 8월 12일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제10빈소에서 발인. △주정규 = 장녀 은수양 10월 28일(금) 오후 5시 30분 서울 보넬리가든에서 결혼. △하영봉 = 빙모상. 9월 17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서 발인.

#### <25회>

△김상수 = 빙부상. 9월 4일 대연장

레식장VIP실에서 발인. △장승엽 = 빙모상. 8월 11일 메리놀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 <26회>

△권해국 = 차남 동근 군 11월 5일(토) 오후 2시 더 펠웨딩홀에서 결혼. △김태규 = 아들 승욱 군 8월 20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월드컵컨벤션 임페리얼볼룸에서 결혼. △유봉식 = 빙모상. 8월 23일 부산 남천성당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인수 = 장녀 혜진 양 9월 17일(토) 오전 11시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별관 4층 더하우스홀에서 결혼. △정중훈 = 모친상. 8월 10일 수장례식장 101호실에서 발인.

#### <28회>

△강현안 = 빙부상. 9월 21일(목) 부산 동아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대식 = 모친상. 9월 9일(금) 분당 제생병원에서 발인. △김홍식 = 차녀 규원 양 10월 8일(토)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 블룸홀 LL층에서 결혼. △정치영 = 빙모상. 9월 4일(일) 부산 동아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30회>

△구의본 = 모친상. 8월 2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권오봉 = 딸 태영 양 9월 24일(토) 오후 2시 아펠가모반포(서울 서초구)에서 결혼. △김병섭 = 장남 태유 군 9월 25일(일) 오후 1시 30분 경주 The K호텔 2층 거문고B홀에서 결혼. △김인수 = 빙모상. 8월 11일 좋은장례식장

VIP 1호실에서 발인. △박세우 = 장남 준석군 9월 17일(토) 오후 5시 30분 역삼동 라움 2F 그라스가든에서 결혼. △박재백 = 장녀 수빈양 9월 3일(토) 오후 5시 서울 루나미엘레 1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서하수 = 빙모상. 8월 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설광열 = 자녀상(장남 설재욱). 8월 5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심봉석 = 부친상. 8월 10일 마곡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에서 발인. △윤광식 = 차남 무영군 9월 24일(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1층 웨딩홀에서 결혼. △윤인태 = 장녀 정원 양 8월 28일(일) 낮 12시 웨스턴조선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이영일 = 장녀 현주 양 9월 3일(토) 오후 6시 30분 한전아트센터 본관4층 양지홀에서 결혼. △이인길 = 모친상. 9월 11일 부산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에서 발인. △장석일 = 딸 혜정 양 10월 8일(토) 낮 12시 30분 더 컨벤션 신사에서 결혼. △정진수 = 장남 우성군 판교 9월 25일(일) 오후 2시 W스퀘어 8층 채플홀에서 결혼. △조현수 = 빙모상. 9월 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5호에서 발인. △고(故) 하준근 = 장녀 나경 양 10월 9일(일) 낮 12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 5층 아바니홀에서 결혼. △한성원 = 모친상. 8월 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 <31회>

△강도진 = 장남 무성 군 8월 27일(토) 오후 1시 40분 울산문수컨벤션웨

####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배중권(6회) = 8월 10일 작고
- △최형백(10회) = 8월 18일 작고
- △이민부(13회) = 9월 17일 작고
- △옥윤석(16회) = 8월 12일 작고
- △박해두(17회) = 7월 29일 작고
- △추봉실(17회) = 8월 21일 작고
- △성기혁(19회) = 8월 4일 작고
- △최흥표(19회) = 9월 17일 작고
- △이재호(21회) = 8월 25일 작고
- △이상렬(23회) = 7월 28일 작고
- △이준호(24회) = 8월 31일 작고
- △안태길(25회) = 8월 8일 작고
- △박흥식(30회) = 9월 7일 작고

딩 지하1층 아비농하우스에서 결혼. △양문석 = 모친상. 8월 29일 안양장례식장 7호 분향실에서 발인. △조봉우 = 빙모상. 9월 12일 괴정병원 장례식장 202호 분향실에서 발인.

#### <34회>

△김인철 = 아들 10월 2일(일) 오후 2시 서울 더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배윤환 = 딸 10월 8일(토) 오후 5시 아바니센트럴호텔 5층(문현동)에서 결혼. △조 선 = 빙모상. 9월 16일 부산메리놀병원장례식장 특1실에서 발인. △최해협 = 딸 8월 27일(토) 오후 1시 W웨딩시티 17층 더스카이홀에서 결혼.

#### <42회>

△김재용 =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주임교수로 영전. △민성기 = 부친상. 9월 6일 발인. △손성곤 = 모친상. 8월 1일 발인.

### 동 정

최장혁(36회),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최장혁(36회) 동문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에서 지난 9월 27일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최 동문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메타(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 미동의 시 서비스 중단' 방침 철회를 끌어내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시절에는 데이터 3법 통과에 주력해 개인정보 위출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동문은 행정고시(제36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대변인,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지구 은사, 98세 일기로 소천

경남중에서 1954년(11회)부터 1969년(25회)까지 15년간 음악교사로 활동한 이지구 은사께서 지난 9월 7일 향년 98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이 은사는 모교 재직 시 제자들의 음악적 정서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고인은 이선재(25회), 이영재(29회) 두 동문의 부친이기도 하다.



이재호(21회) 용마장학회 감사 별세

경남중고 용마장학회 감사직을 수행하던 이재호(21회·변호사) 동문이 지난 8월 25일 급환으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화 여사와 딸 이유진, 유현 씨가 있다.



## 43회 '십인회', 경남고 야구부 초청 격려회

### 김대훈 동문, 근육회복치료기기 1대 기증

43회 동기생들이 모교 야구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43회 소모임 '십인회' 동기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을 초청, 격려회를 지난 9월 28일(수) 오후 대한통운뷔페에서 가졌다(사진 위). 이들은 모교 야구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회 참석자 : 서원택 류법권 김대훈 최영동 이학노 마성준 박상순 ○...김대훈(다대수병원 기획이사) 동

문이 지난 9월 30일 경남고 야구부에 근육회복치료기기(제품명 사소) 1대를 기증하였다(사진 아래). 이 기기는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생기는 근육피로를 쉽게 마사지해주는 치료기이다. 김 동문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다"면서 추후 선수들 반응에 따라 기증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야구후원회의 밤'**  
12월 5일(월) 오후 6시부터 벅스코 컨벤션홀

# 2022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2,276명> (2022. 9. 27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욱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료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 7회 윤용우 임성국 2023년
- 11회 김광석 2024년, 이근우 2023년, 이세영 2025년
- 13회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이창열 2023년
- 14회 박남조 2026년, 신용진 이호근 2024년
- 15회 손부흥 2031년
- 16회 민신웅 2023년

- 18회 홍우재 2024년
- 21회 육화원 2023년
- 23회 박재호 2028년
- 24회 구자웅 정윤상 2023년
- 25회 박명우 2024년, 임창운 2051년
- 26회 이상원 2030년
- 28회 구영소 박종기 2024년, 이종만 2023년, 하재근 2028년
- 29회 황유명 2023년
- 30회 강석철 2030년, 박철우 2027년, 변윤수 서강태 2023년,

- 32회 신교선 2025년
- 33회 최준호 2024년
- 34회 조덕환 2023년, 최웅남 2030년
- 35회 박철웅 2023년
- 36회 이호성 2023년
- 37회 김관용 2026년
- 38회 서동욱 2024년, 최기영 2025년, 허부남 2026년
- 39회 권두성 2029년, 김언규 2024년
- 40회 박훈재 2025년, 문형욱 2023년
- 43회 김대영 2024년, 최용석 2023년

- 45회 김진수 박종호 최재영 2023년
- 46회 오영훈 이동수 2023년
- 48회 김춘호 2023년
- 49회 장민건 2023년
- 50회 박종현 2028년
-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 53회 백홍상 황종민 2023년
- 54회 엄도용 2024년
- 58회 김현운 2023년
- 66회 성범석 2023년
- 69회 정민기 2023년

- 3회(4명)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 4회(5명) 김희수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 5회(8명)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상기중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 6회(12명) 강동숙 김중철 배중권 변영수 손운수 유상환 이희문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 7회(15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태배 노해규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국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 8회(13명) 김봉길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 9회(13명) 김기관 김 청 김태영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윤일명 안규현 강동근 전인규 정 록 정해돈 지삼봉

- 10회(30명) 강희윤 김기호 김상규 김선동 김정학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상영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경우 장기상 전영대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종계 진 강 최병도 최형백
- 11회(52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인호 김태호 김학수 김항근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창순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운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경광 유홍종 이강우 이계찬 이근우 이상태 이상훈 이성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은표 제정오 지창호 천근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 12회(62명) 강부순 강수현 강창수 구진용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종련 김종일 김지희 김환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운 박정운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중석 백운권 변도만 서병기 손계준 심용직 이상식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승태 이용언 이원우 이현달 임상원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시진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 13회(79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호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익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경대

- 14회(55명) 강우신 권 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무웅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청홍 배중현 송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철 윤태규 이경우 이광연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 15회(58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종태 김중현 김중광 김홍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성훈 배 훈 서영진 손부흥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희정 이상호 이수명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조규중 천신일 최광웅 최귀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 16회(67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용 김박일 김상호 김영우 김영일 김웅진 김일규 김경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충길 김형석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종봉 박 흥 방수근 배정희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방소 이상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창원 임승연 정우광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량 황규호

- 17회(53명) 감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동수 김상천 김용구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규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홍규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환 윤성욱 윤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영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조증언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 18회(62명)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용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사권 김성건 김재창 김중철 김지호 류종우 문재빈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문 박준성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손무열 손찬규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근희 이영범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규홍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철 허만조 허영태 홍우재 황광근

- 19회(79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행복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선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 태 손철수 신동인 심영섭 심재구 안경도 오 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양한 이용조 이용흥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춘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봉 정용식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황태경 황태원

- 20회(46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세준 김형철 김일석 김조동 김중민 김한원 김형오 김학식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준태 백원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유근준 윤우성 이영오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창하 허남균

- 21회(79명) 강상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영삼 김완일 김우건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형세 마상준 박명문 박용욱 박상기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영정근 신대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성환부 오익희 오태규 육화원 이명환 이상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점수 최정림 최준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 22회(69명) 강호일 고인준 금명환 김광국 김도산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A 김승규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경근 김철현 김학근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모 박승목 박연표 박재상 박창섭 박홍조 배병환 배준식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 안영수 오세길 유명운 유인조 윤동원 이경상 이민성 이용규 이윤제 이춘식 이홍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장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완식 최학봉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 23회(71명) 감인홍 고용석 김우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태 김석현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김익근 김정록 김주찬 김재용 김태호 배중순 문명욱 박기홍 박동현 박인권 박재호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영춘 송충승 신경재 신언극 안경섭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우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기호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순호 이영재 이영훈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이준석 이창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성건 정용호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 24회(87명) 강동우 강용중 강청흠 광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극제 박명렬 박윤섭 박천호 박종규 배중갑 변용준 서정태 서정희 손찬호 신창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운진 이명복 이상우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운 정명근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원 진병진 차한영 최동우 최승국 최원주 최현규 태창업 하재갑 한상렬 허구연 황성동 황성훈

- 25회(126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명 김영수 김영호 김욱권 김욱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학 김중국 김중만 김중현 김진우 김창욱 김창호 김태선 노태호 도재문 박건수 박경림 박광욱 박영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중복 오양득 옥동훈 오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성웅 이승욱 이신화 이인규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홍성 임영대 임창운 장대락 장세훈 전섭태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정 한준석 허민탁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호선

**26회(76명)**

강수남 강영녕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성현 김영섭 김원정  
김일광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주병  
김채영 김태년 김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옥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욱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옥호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수철 이양춘 이영학 이우상 이정근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정영륜  
정익교 정재영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차인식 최낙준 최명해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청근 황광수

**27회(49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병기 김병욱 김병철 김상문 김인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종욱 김중우 김지연  
김진명 김희희 김호균 문두찬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배효택 백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한원  
오봉인 윤종락 이민부 이상득 이요섭 이종경  
이현 장인철 장창조 전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최인성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6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운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용희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김홍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윤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경환 신중현 안재홍 안풍  
양동욱 엄재홍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상훈 이영희  
이영남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희호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선국 전진학 정두석 정백수  
정영주 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  
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  
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73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상규 김영  
김영훈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철오 김태완 문명환 문창견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홍 박영섭 박봉구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변중만 사공운  
근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신현수 안  
청홍 윤석희 윤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경윤 이준환  
이진욱 임상훈 장현경 전장화 정길 정성훈  
정희용 조승재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맹근 황유명

**30회(75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재일 김진영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노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철우 박희관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식 서희원 신교실 신규근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병구 이성기 이수성  
이우우 이원용 이종욱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환기 인준승 장호영 장현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채화 정태환 정해석  
조재성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욱 최진근  
최권근 하규양 황철민

**31회(65명)**

강대석 고영호 공종렬 곽중철 권해철 김광수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중호A 김태  
근 김판덕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  
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경 박종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수교 서태교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홍구 홍성수

**32회(34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민길식 박성철 박우상 박원근 박준구  
박진원 신국선 양문성 엄호선 예동해 오경명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이환용 임인섭 임채균 정영철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허수철

**33회(48명)**

고창성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중인 김철  
김태훈 김혁 남경태 노경호 박근보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중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창선 이등근 이윤조 이은우 이창훈  
이형규 이형근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환남 최환호 황정원

**34회(29명)**

강승기 광수군 김두섭 김상갑 김태하 김화봉  
노인선 박기훈 박철용 옥재영 윤성부 이강희  
이상운 이상엽 이용희 이재완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도혁 정하태 조문국 조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35회(30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나동욱  
노창호 류인수 박동렬 박창석 백현성 백현호  
서석권 성규원 손재수 안중엽 안중일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상환 이춘기 이현수  
이효성 강인화 정운성 경호영 주귀홍 최기평

**36회(52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B 김정현 김중백 김종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박승근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양성용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상호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정창규 제갈재환 지동섭 최덕  
희 최상도 최재혁 최태섭 한형식

**37회(35명)**

강대우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의렬  
김정수 김중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기섭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천웅찬 최기영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36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인규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심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양배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최후경 한민덕

**39회(49명)**

곽기영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경남 김중엽 김철술 김형보 남호찬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종욱 이준영  
이태운 장민훈 장영욱 장윤혁 정순환 정영설  
정영철 정의창 정진해 천용준 하성포 하순호  
허중기

**40회(27명)**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춘강 문형욱 박근성  
박무성 박재현 박재재 배병훈 서정민 손균효  
심철 안성호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기  
이병완 이상백 이경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용석 최치언

**41회(34명)**

강병오 강석희 강훈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상  
환 박정의 백선민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윤  
성보 윤성환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이형석  
임병호 강윤호 전삼록 경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하범중 한정호 한창희 허중운

**42회(21명)**

강인호 고장석 곽창우 김광철 김동수 김순근  
김원주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기열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안정일 윤영기 이영도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43회(23명)**

강병규 고두병 구명진 김대영 김동현 김신현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문영찬 박경근  
윤성진 이상현 이성춘 이용상 이경열 이진배  
정호범 최동환 최용석 최하림 허재원

**44회(23명)**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형모 김황  
문형준 배봉건 안성만 윤철홍 이동렬 이병희  
이수철 이창용 전광열 정의석 조영호 조진현  
진생재 탁정환 한수성 허태욱 황인주

**45회(41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용성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근 김현호 박웅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우 신상왕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정상희 정중훈 조창래 조태성 주흥기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3명)**

강남구 강성백 권성기 권진근 권태윤 김경수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철홍 김태영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송영주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영훈 윤성근  
이경승 이동수 이상민 이재광 이태환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47회(11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배준수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정신 정민호

**48회(9명)**

권태현 김정훈 김중철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근 이동재 차원일

**49회(8명)**

김태훈 박시원 신중국 이충현 장민건 조영철  
최유탄 최진영

**50회(23명)**

강봉규 강철 구원모 김동현 김석훈 김유진  
김재웅 김재호 김정현 남경협 박종현 백승현  
안기범 윤준선 이상준 장태호 전세계 정재우  
정희석 차승준 최호호 하진일 황현후

**51회(13명)**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태 박보순 반길호  
신혁휴 신한식 유상일 이덕 이지모 정진우  
최우영

**52회(23명)**

강영철 김민수 김민철 김상근 김지운 김현진  
박상현 박선종 백성명 변의현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현황 이형재 임치훈 장태원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훈만

**53회(9명)**

강덕천 김권우 김상욱 문희규 백홍상 송승운  
이원준 한동인 황종민

**54회(10명)**

강치범 고지현 김승택 석강훈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조중완

**55회(73명)**

강경동 강문성 고윤성 권세호 김대성 김대진  
김동현 김민성 김정현 김태련 김태현 김팔경  
김현달 김현중 김형식 박기홍 바다니엘 박두  
근 박상인 박신현 박정민 박찬우 백광일 변  
주환 서진우 송정환 신동현 신민걸 신용국  
안준형 안진영 양세동 윤승환 이대호 이도경  
이동규 이동욱 이동주 이동현 이문원 이영훈  
이욱한 이종원 이해민 이향림 임인철 장민  
장범후 장지훈 장현준 전대근 전민기 정군찬  
정보영 정승윤 정철규 제갈문 조윤호 조재영  
조중호 조현민 최범준 최상국 최성원 최유성  
최익제 최지훈 최훈 하치수 한재호 허준  
황보영 황시우

**56회(2명)**

임동섭 장재환

**58회(1명)**

김현운

**59회(1명)**

김성수

**60회(2명)**

유영재 이명희

**64회(1명)**

표종빈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환 김시준 성병석

**67회(3명)**

권성민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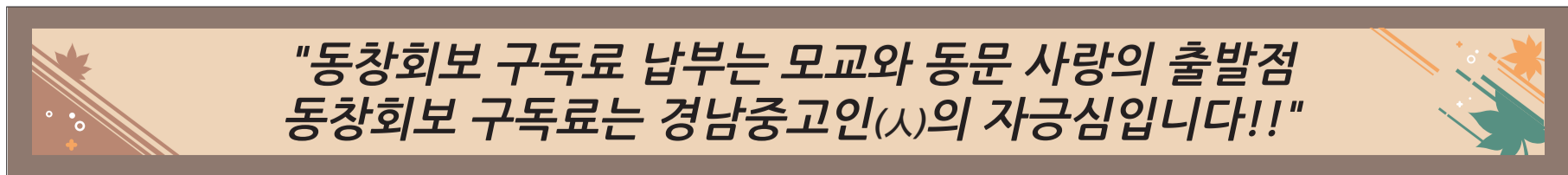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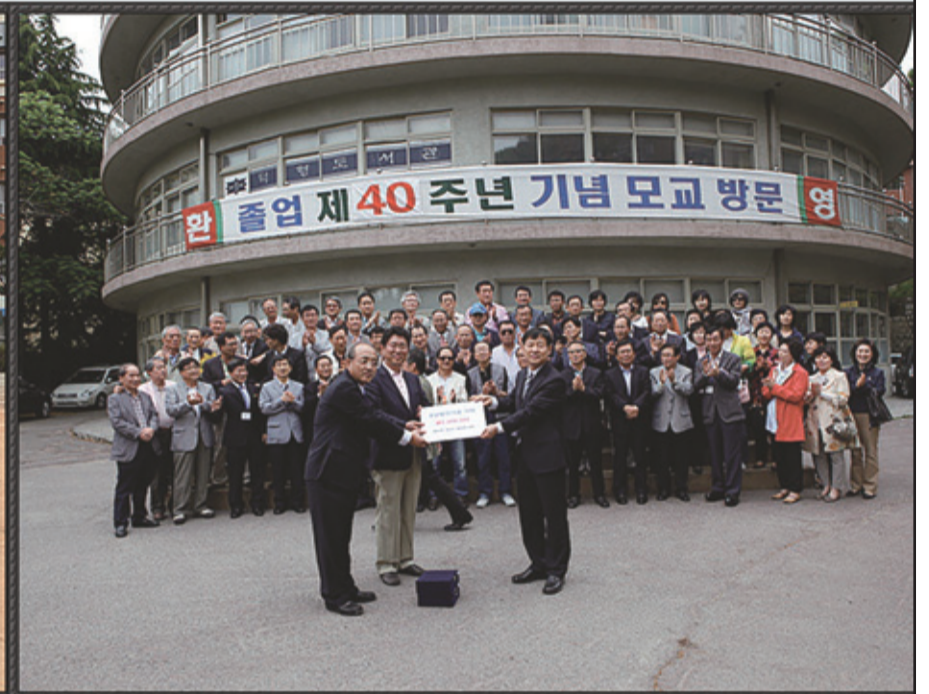
기수 & 이름 확인불명 6명

2022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2년 9월 27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7	46	69%	39	68	49	72%
2	0	0	0%	21	106	79	75%	40	50	27	54%
3	5	4	80%	22	96	69	72%	41	60	34	57%
4	6	5	83%	23	95	71	75%	42	39	21	54%
5	11	8	73%	24	118	87	74%	43	71	23	32%
6	20	12	60%	25	192	126	66%	44	50	23	46%
7	21	15	71%	26	109	76	70%	45	55	41	75%
8	23	13	57%	27	81	49	60%	46	38	33	87%
9	24	13	54%	28	90	76	84%	47	37	11	30%
10	43	30	70%	29	117	73	62%	48	12	9	75%
11	61	52	85%	30	115	75	65%	49	33	8	24%
12	75	62	83%	31	90	65	72%	50	57	23	40%
13	91	79	87%	32	51	34	67%	51	106	13	12%
14	68	55	81%	33	64	48	75%	52	135	23	17%
15	75	58	77%	34	38	29	76%	53	43	9	21%
16	82	67	82%	35	55	30	55%	54	90	10	11%
17	61	53	87%	36	66	52	79%	55	73	73	100%
18	92	62	67%	37	43	35	81%	56	11	2	18%
19	100	79	79%	38	51	36	71%	57	35	15	43%
Sub-total(1)		667명		Sub-total(2)		1,156명		Sub-total(3)		447명	
<b>미상</b>		<b>6명</b>		<b>목표인원</b>	<b>4,000명</b>			<b>구독료납부인원</b>	<b>2,276명</b>		
<b>총발송부수</b>		<b>3,565명</b>									





경남중·고  
제26회 졸업50주년  
**홈커밍데이**



- 일자 : 2022년 10월 15일(토) ~ 16일(일)
- 장소 :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 경남중·고 교정
- 숙소 : 해운대 토요코 인, 사상 비즈니스 호텔 르네상스
- 주최 : 경남중·고 26회 동기회, 재경 경남중·고 26회 동기회

### 본부 동기회

회 장 : 박 상 호  
수석부회장 : 조 만 석  
감 사 : 윤 흥 석  
사무총장 : 최 의 수

### 재경 동기회

회 장 : 박 오 옥  
수석부회장 : 강 용 수  
감 사 : 현 동 우  
사무총장 : 김 정 원